

2020 국별 진출전략

이집트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아프리카대륙무역협정(AfCFTA)	4
나. EFTA 4개국 FTA효과로 2020년부터 4개 품목 관세 철폐	4
다. 이집트 정부 청사 신행정수도 이전	5
라. 이집트 2019-2023 고형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 실행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6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6
가. 정치 환경	6
나. 경제 환경	7
다. 산업 환경	8
라. 정책·규제 환경	13
2. 시장 분석	17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7
나. 교역	18
다. 투자	22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5
가. 교역	25
나. 투자	27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30
III. 진출전략	33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33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4
3. 한-이집트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9
4. 진출 시 유의사항	44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46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8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51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2
부 록	
對이집트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53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이집트 경제 성장세 지속 전망

- (호조요인) 강도 높은 경제구조 개혁으로 각종 거시경제 지표 안정
 - 2016년 IMF가 요구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으로 빠른 경제 회복세
 - * (실질성장률) 2017년 4.1% → 2018년 5.3% → 2019년 5.4% 예상 (Euromonitor)
 - * (실업률) 2018년 9.8% → 2019년 9.6% 예상 (Euromonitor)
 - * (외환보유고) 2017년 435억 달러 → 2018년 438억 달러 → 2019년 437억 달러 예상 (IMF)
 - 2020년 이집트 경제 지속 성장 전망 : 관광회복,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경제 개혁 성과, 투자자 신뢰 회복 및 민간소비 증가 등이 견인 요인
 - * (2020년 경제성장률) IMF 5.9%, 세계은행 5.8%, 이집트 재무부 5.6%, 유로모니터 4.9%
- (부진요인) 높은 공공부채 비율,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치안 불안 등
 -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이집트 정부의 신중한 경제정책 추진이 필요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84.7	86.7	89.0	90.2	94.8	97.0	99.2	101.5
명목 GDP	십억 달러	288.0	305.6	332.1	332.5	236.5	249.6	299.6	331.3
1인당 명목GDP	달러	3,400	3,524	3,731	3,686	2,495	2,573	3,020	3,265
실질성장률	%	3.3	2.9	4.4	4.3	4.1	5.3	5.5	5.9
실업률	%	13	13.4	12.9	12.7	12.2	10.9	9.6	8.3
소비자물가상승률	%	9.8	8.2	11.4	14	29.8	14.4	12.8	10.7
재정수지(GDP대비)	%	-2.2	-0.9	-3.7	-6	-6.1	-2.4	-2.4	-1.7
총수출	백만 달러	28,958	27,470	21,745	22,372	25,043	31,528	-	-
(對韓 수출)	"	1,016	532	218	62	90	313	81	-
총수입	"	66,042	73,484	73,562	70,771	58,332	-	-	-
(對韓 수입)	"	1,535	2,364	2,179	1,769	1,325	1,847	1,133	-
무역수지	백만 달러	-37,083	-46,013	-51,817	-48,400	-33,289	-	-	-
경상수지	십억 달러	-6.4	-2.7	-12.1	-19.8	-14.4	-6.0	-7.1	-5.7
환율(연평균)	현지국/US\$	6.9	7.1	7.7	10.0	17.8	17.9	17.2	-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301	253	182	207	199	324	-	-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4,256	4,612	6,925	8,107	7,409	6,798	-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이집트 중앙은행, IMF, Global Trade Atlas, UNCTAD, KITA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2. EFTA 4개국 FTA효과로 2020년부터 4개 품목 관세 철폐
3. 이집트 정부 청사 신행정수도 이전 시작
4. 이집트 2019~2023년 고형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 실행

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엘시시 대통령, 아프리카 연합(AU)의 카이로 이니셔티브 지속 촉구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 공식 발효
 - 2019년 7월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인 이집트의 엘시시 대통령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이 공식 발효됨을 발표
- (규모) WTO 출범이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 약 12억명 인구, 2조 5천억 달러 GDP 규모
 -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동 협정 발효 시 2022년까지 역내교역이 2010년 대비 52.3%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주요내용) 아프리카 시장에서 재화와 상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WTO체제 내 아프리카의 협상력 강화
 - AfCFTA는 4단계 단일시장 형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19년 까지 관세 동맹 체결을 위한 논의 진행 중
- (기회요인) 이집트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이집트를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

나. EFTA 4개국과의 FTA 효과로 2020년부터 4개 품목 관세 철폐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체결

- EFTA(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7년 8월 1일 발효
 - 대(對)EFTA 수출 :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 철폐
 - 대(對)이집트 수출 : 2020년까지 부속서(Annex) 4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 대상품목 : HS Code 870310, 87032290 등 21개 품목

다. 이집트 정부청사 신행정수도로 이전

이집트 정부 2020년 6월부터 신행정수도로 이전

- 이집트 신행정수도위원회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인 40,000에이커의 약 70%의 인프라와 도로 등이 완공되었으며, 전체 면적 170,000에이커에 달하는 프로젝트는 2019년 말에 완성 예정
 - 동 프로젝트들의 재원은 투자자들에게 토지 매각 등을 통해 조달
- 남은 30%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 중 다수의 기업은 통신 장비, 컴퓨터 장비, 일반 사무 장비들에 대한 수요 예상

라. 이집트 2019~2023년 고형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 실행

이집트 2019~2023년 고형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 실행 회의 개최

- 무스타파 메드볼리 총리, 세 가지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집트 고형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회의 개최(2019년 7월)
 -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이집트 주 정부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비율은 57.5%
 - 실행 첫해의 계획(2019~2020년) : 8개 쓰레기 분리 공장 건설
(5개 주 : 카이로, 다카흐리야, 샤르끼야, 파이욘, 룩소르)
 - 15개의 이동 쓰레기 분리 공장 건설(7개 주 : 다미에타, 이스마일리아 등)
-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프로젝트 수요 분야 : 수거 시스템, 분류 기계, 이동 차량 등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현 정부 헌법 개정으로 장기집권 전망
- (경제)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
- (산업) 제조업이 비교적 발달한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로 경제회복 추진
- (정책) 장기 국가 비전으로서 이집트 지속가능발전전략(SDS) 2030 지속 추진

가. 정치 환경

엘 시시 대통령, 헌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장기집권 가능

- 이집트 의회의 현행 헌법 개정안 최종 승인 후 국민 투표 완료 (2019년 4월)
 - 전체 유권자의 44.3%가 투표참여, 88.8%의 찬성률과 11.2% 반대율 기록
- 주요 개헌 내용
 - 대통령 임기 연장(현 4년에서 6년), 대통령 2회 이상 연임 가능
 - 최소 180여 명으로 구성된 상원을 설치하고, 현재 596명으로 구성된 하원을 450명으로 축소
- 2018년 당선된 현 엘시시 대통령 임기는 2024년에 종료, 이후 재선출을 통해 2030년까지 장기 집권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현 정부의 경제개혁 및 정책 등이 안정적 실행될 것으로 전망

2020년 이집트 총선 4월~5월 실시 예정

- (양원제 의회 부활) 2014년 해산한 상원을 2019년 개헌으로 부활
 - 임기 5년의 최소 180명으로 구성된 상원 설치, 상원의원의 2/3인 120명이 선출, 60명은 대통령이 지명
 - 입후보 자격 : 35세 이상 이집트 국적자, 대학 학위 소지, 법적으로 시민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된 자 등
- (하원 축소) 하원의원 현재 596명 정원에서 450명으로 축소
 - 하원의원 의석의 25%인 최소 112석을 여성에게 배정, 임기 5년



중동·아프리카지역의 전통적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국 역할

-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아랍과 서방국가를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 정책

주요국 대외 관계

미국	전통적 우호 관계 유지, 군사 및 경제원조 받아옴
러시아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유대 관계 속 제 분야 협력 강화 중
아랍연맹	팔레스타인 문제 중재 등 아랍권에서 발언권과 영향력 강화
GCC 국가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의 원조 받아옴
아프리카	역내 중심국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자 역할
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 기조 지속

나. 경제 환경



IMF 구제금융 지원 프로그램 막바지

- (이집트 경제구조)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수에즈 운하 통행료, 해외 자국민 노동자 송금, 관광 수입, 해외 원조 등으로 보전하는 구조
- (2016년 IMF 구제금융 신청) 2011년 혁명 이후 정정불안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로 외환부족이 심화되어 2016년 11월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신청함
 - 총 120억 달러 3년간 분할 지급 받고, IMF가 요구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
- (마지막 차관 송금 완료) 2019년 제5차 경제실사 결과 발표 및 마지막 지원분 수령 완료
 - 이집트 총리는 새로 선출된 IMF 총재를 만나 이집트의 구제금융 이후 협력 방안 논의 (2019년 10월)
 - IMF 총재는 경제개혁의 지속과 인적 자원 개발에 노력할 것을 촉구



경제구조 개혁 추진현황

- 이집트는 2016년부터 강력한 경제구조 개혁 정책을 추진
 - 변동환율제 시행, 점진적 에너지 보조금 철폐, 투자법 개정, 경상수지 적자 폭 개선, 인플레이션 억제, 200만 가구 빈곤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등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
- 2019년 제5차 IMF 경제실사 결과 발표(2019년 7월)
 - 3년간의 주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주요 목표 달성
 -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혁 오퍼십과 정책 실행으로 2016년 이후 거시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

- 대내외의 광범위한 불균형 해소, 거시경제 안정, 경제성장과 고용회복, 성공적인 경제개혁으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2020년까지 5.9% 경제성장 전망

- (경제성장률) 이집트는 2019년에 5.5%의 경제 성장률을, 오는 2020년에는 5.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은 2021년 이집트 경제성장률이 6%를 기록하고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 관광, 제조업, 건설, ICT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이집트 신용등급)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이집트 신용등급을 B3에서 B2로 상향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등급 전망을 평가함(2019년 4월)
 -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의지가 재정 상태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이집트 관광 활성화에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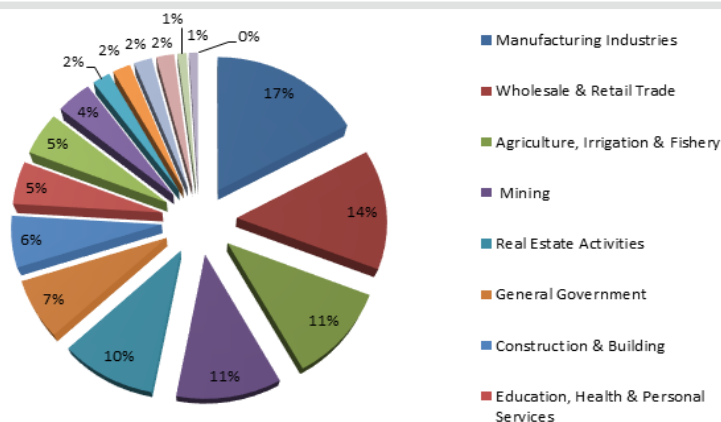
- 2011년 이후 테러, 혁명 등으로 인한 치안 불안정으로 인해 이집트의 관광업이 한동안 불황이었지만, 이를 벗어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 지속 중
- 정부의 특별 인센티브 제도, 풍부한 내국인 관광 숙련 노동인력, 유명 호텔 체인들을 발판으로 삼아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

다. 산업 환경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

- 제조업이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소매업, 농수산업 순

이집트 주요 산업구조 및 GDP 비중



자료 : 이집트중앙은행(2019년 9월 기준)

-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제품은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들은 인근 국가들에 수출할 정도로 경쟁력을 보유

자동차산업

- 시장조사전문기관 BMI에 따르면, 이집트의 자동차 시장(매출액 기준)이 2018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까지 연평균 2.5% 성장 전망
 - 이집트의 자동차 생산 분야는 2018년 9.1%의 성장률을 보이며 매출부분에서 개선되었으며, 이는 신규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현지설립에 기인
 - 이집트의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Automotive Market Information Council에 따르면 2018년 11월까지 승용차 판매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2만 3천 5백만 대, 버스의 경우 24% 증가한 1만 4천 대, 트럭은 39% 증가한 2만 8천 대 판매
- 한국산 승용차(트럭, 버스 등의 상용차 제외)는 2019년 5월 기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23.7%, 14.4%를 차지

이집트 SUV 판매점유율(2019년 5월)

브랜드	차종	점유율(%)
Hyundai	TUSCON 1.6	23.7
KIA	All-New Sportage	14.4
Nissan	Qashqai 1.2T	8.8
Peugeot	3008	8.6
Chery Ghabbour	Tiggo	8.1
Renault	Duster	1.3
Renault	KADJAR	3.3
Subaru	XV	5.0

자료 : AMIC(Automobile Marketing Information Council)

- 이집트 자동차 생산 촉진제 최종안 각료 회의 통과(2019년 8월)
 - 이집트 국내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관세 삭감
 -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3단계 혜택으로 구분
 - * 전체 부품의 45% 미만을 현지업체로부터 구입 : 현지 구입 비율을 지속 증가시킨다는 조건으로 부품 수입관세를 50% 삭감
 - * 전체 부품의 45%를 현지 업체로부터 구입 : 부품 수입 시 5.6% 관세 부과
 - * 전체 부품의 45% 이상을 현지 업체로부터 구입 : 개별 부품당 5.6% 관세 부과 또는 수입분 전체로 15~20%의 관세 부과
 - 상기 제도 수혜업체들이 자본재와 기계 수입 시 2%의 관세 적용 예정
 - 이집트 정부는 동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체들이 수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관세 혜택을 받는 EU, 모로코, 터키 상품과의 경쟁력을 키워 나아갈 것으로 기대
 - * 독일을 포함한 EU 무역 파트너들은 이 제도에 강한 반대 입장 표명

- 이집트 전기자동차 시장에 중국 진출 본격화
 - 이집트 방위산업청 'Geely' 중국 자동차와 전기차 생산을 위한 MOU 체결(2019년 9월)
 - Shanghai Stock Exchange와 전기자동차 충전 스테이션 제작 공장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중국 Foton와 4년간 전기버스 2천대를 이집트 국내에서 생산 합의
 - 이집트는 현재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는 미비하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 및 충전소 제작 현지화, 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 중
- EU(유럽연합)를 비롯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GAFTA(범아랍자유무역지대), 터키, EFTA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MERCOSUR(남미공동시장), UEMOA(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체), CEMAC(중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인도, 러시아 등과 협정 체결 추진 중

석유화학산업

- 이집트의 석유화학산업은 GDP의 3%, 제조업의 12% 차지
- 이집트 정부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 자국 석유화학제품 생산과 수출을 늘리기 위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석유화학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으로 현재 1~2단계가 완료되고, 3단계의 80%가 진행 중
 - 동 플랜 하에 폴리염화비닐, 액화가성소다, 에틸렌, 폴리에틸렌, 액화석유가스, 선형아킬벤진 등의 품목은 생산력이 크게 향상
- 석유화학제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내열성 플라스틱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해 전량 수입에 의존
- 시장 동향
 - 2018/2019 회계연도에 20억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현재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집트 석유화학지주사(EICHEM) 회장이 밝힘.
 - 수에즈 메탄올 유도체 회사의 새 메탄올 생산 프로젝트, Sidpec사의 프로필렌 및 폴리프로필렌 생산 프로젝트, Ethydc의 뷰타다이엔 생산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가 모두 지난 회계연도에 이루어졌다고 석유부 보고서를 인용하여 밝힘.

전자 제품산업

- 시장 현황 및 전망
 - 전자 제품산업은 이집트의 제조업 생산량에 기여가 큰 선도 산업 중 하나
 - 약 260개의 현지제조업체가 있으며 이 중 132개는 가전제품을, 128개는 상업용 전자제품을 생산

이집트 전자 산업 수급 현황

(단위 : 억 달러)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
설비투자	46.87	30.86	48.13
국내생산	328.97	341.07	493.30
국내소비	52.29	72.58	82.30
수출	6.12	4.96	7.40
수입	11.58	7.73	5.82

자료 : 이집트중앙은행, Fitch Solutions

- 약 70%는 조립생산(CKD, SKD), 30%는 현지 공장에서 제조하며 현지 제조업체들은 부품의 약 40%를 해외에서 수입
- o Egypt Makes Electronics(EME)
 - 이집트 대통령은 이집트의 전자제품 제조업 육성을 적극 추진
 - 이집트의 전자제품 제조업 육성은 이집트의 수출량 증대와 전자제품 수입 의존성을 낮추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전자제품 제조업 육성의 핵심은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전자회로 시스템 발전과 생산 공정에서 노동집약적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임.

건설 프로젝트

- o 시장 규모
 - MEE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900억 달러
- o 시장 특징
 -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이집트 메이저 EPC와 글로벌 EPC 간 PPP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BOT 방식 증가 추세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 파트너 기업의 투자 또는 재원에 의존
 -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이집트 EPC의 독자적 수행능력 부족
- o 한국의 대(對)이집트 프로젝트 수주액
 - 2018년 기준 약 1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0% 증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전체	중동	이집트	이집트 비중	전체	중동	이집트	이집트 비중
수주	29,005	14,578	0	0	32,116	9,204	135	0.004
*증가율	2.9	36.3	▼100.0	-	10.7	▼36.9	▲100.0	-

* 증가율 : 전년 대비/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 현황

- 이집트 정부, 2016년 5월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 발표
-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2050년까지 도시 지역을 확대하고 행정부 등 국가 중요시설 이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2019년 7월 기준)

프로젝트명	진행 상황	주관 건설 업체	규모
정부 청사 구역 프로젝트 - 12개의 부처 건물들로 구성된 정부 청사 본부 및 외국 대사관, 국회 의사당 건물 건설(이집트 정부 예산 지원)	70	이집트 현지 건설업체 12개	5억
호텔&컨퍼런스 홀 - 500여 개의 객실이 있는 카이로에서 가장 큰 호텔&컨퍼런스 홀 건설(이집트 정부 예산 지원)	100	Hassan Allam 건설	8,500만
중심 상업 지구 - 20여 개의 상업거주 복합 단지, 20개의 타워, 상업 지구 건설(중국 정부 투자)	50	China Fortune Land Development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	20억
중앙 주거 지구 - 3,000호의 주택과 이집트에서 가장 큰 그랜드 모스크, 교회가 있는 13개의 거주 구역(이집트 정부 예산 지원)	70	이집트 현지 건설업체 5개	3억
복합화력발전소 - 4,800MW 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집트 전기&에너지부)	100	Siemens	2억 2,000만
인프라 공사(도로, 터널 및 다리) - 총길이가 213km인 14개의 도로, 1만 1700m의 다리 4개, 2만 1,600m의 터널 4개 건설(이집트 정부 예산 지원)	40	Orascom OCI /Hassan Allam	3억 2,000만
경전철 - 신수도와 카이로, 공항을 연결하는 경전철선 건설 (중국 정부 투자)	30	AVIC International and China Railway Group	12억
국제공항 - 공항 건설(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큼)	50	Orascom OCI	3억 5,000만

자료 : 신행정수도건설청

- 한국 기업이 참여 가능한 부문 : 하기 항목은 신행정수도건설청(ACUD)이 언급한 대한민국이 참여 유망한 프로젝트로 외국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청 및 건설 현장 방문 보고서' 참조

프로젝트명	설명	상태	규모(US\$)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4배 크기의 테마 파크 건설	타당성 조사	4억
메디컬 파크	63개의 병원과 1,000개의 클리닉 건설	타당성 조사	2억 5,000만
지성 도시	대학과 학교가 있는 지성 도시 건설	디자인	1억

자료 : 신행정수도건설청

○ 다바(Dabaa)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이집트는 카이로 북서부 다바 지역에 900~1,600MW급 경수로형 원전 2기 건설 추진 중
* 2027년까지 원전 총 4기 건설을 계획

- 원전 수주를 위해 경쟁이 치열했으나, 국제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가 수주에 성공했으며 시공 업체 선정 관련 러시아 측에서 국제입찰 발주
- 2019년 한국 기업 컨소시엄으로 원전 시공 입찰 참여 추진 중

라. 정책·규제 환경

'이집트 산업통상 발전전략 2016~2020년'

- 정책목표
 - 연간 산업 성장률 8% 증가 및 제조업 분야의 GDP 비중 18%에서 21%로 확대
 - 중소 중견기업의 GDP 기여율 증대 및 연간 10%대의 수출 비중 증대
 - 3백만 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정부 및 기관 발전
- 비전과 주요 목표하에 5개의 핵심 발전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세부 시행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시
 - 산업 발전, 중소기업 발전, 수출 발전, 기술 및 직업훈련 업그레이드, 정부 및 기관 발전
- 우대 분야
 - 산업 강화, 수입축소 및 수출 증대 분야 : 엔지니어링, 화학, 섬유 및 의류, 건축기자재 산업
 - 현지 밸류체인과의 통합 분야 : 재생(산업 및 농업 폐기물), 포장, 화학,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기계, 전자기기, 대중교통 수단), 신재생에너지, 농업, 건축기자재 등

'이집트 지속가능발전전략(SDS) 2030' 지속 추진

-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근대화, 개방화, 민주화, 생산성 강화와 행복한 시민사회를 목표로 2030년까지 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 (10대 축)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국민행복, 인적 자원 개발을 주요 골자로 2030년 세계 3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틀 제시
 - 이집트 SDS 2030 10대 축 : 교육훈련, 에너지, 환경, 지식·혁신·과학, 투명성·정부효율성, 도시개발, 보건, 사회정의, 경제, 문화

이집트 SDS 2030 목표



이집트 SDS 2030 10대 축



자료 : 이집트 SDS 2030, KOTRA 중동 주요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과 활용전략

○ (경제) 지속 가능한 포용적 경제성장 목표 제시

- 거시경제 안정, 수출과 서비스 부문 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부가가치 극대화, 일자리 확대, 국민소득 증대, 비공식부문 경제통합 등을 통한 글로벌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이집트

주요 KPI 지표*	2015년	2030년
실질 GDP 성장률	4.5%	12%
GDP 중 제조업부가가치 비중	12.5%	18%
제조업 성장률	5%	10%
민간부문 GDP 기여율	60%	75%
GDP 중 무역비중	37%	65%

자료 : 이집트 SDS 2030, KOTRA 중동 주요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과 활용전략

* 이외 총 30여 개 목표 설정

○ (에너지) 경제성장과 자원안보 및 환경보존을 통할하는 범분야 이슈로서 에너지 분야 목표 제시

- 석유 및 가스 매장량 현재 수준 유지, 송배전 효율 강화, 연료보조금 폐지, 전력 생산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매장량 유지

이집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기본협정 발효

- 2019년 5월 30일 기본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협상 중
- 55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할 FTA(자유무역협정)로 참여국들의 총 GDP는 3조 달러가 넘는 WTO 출범한 이후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
- 현재까지 창설에 합의한 국가는 아프리카 55개국 중 44개국이며, 12억 아프리카 인구와 GDP 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 형성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12.8	-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공동시장(인구 3억 8천 명) - 회원국 : 동남아프리카 21개국 - 남아공은 옵서버 -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범아랍자유무역협정 (GAFTA)	1998.1.1	- 회원국 : 아랍연맹 17개국 - 이집트는 걸프 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 국가별관세수와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6.1	- 15개 EU 회원국과 이집트 간 FTA - 이집트, 대(對)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 EU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인하 및 철폐 * (예) 자동차 관세는 2010~2019년간 매년 10%씩 인하 - 농산물 일부 쿼터 해제 및 관세 인하 또는 철폐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1.1	-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 간 협약 -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11.7%에서 2008년 1월 1일부로 10.5%로 변경)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 이상 사용 시 대미(對美) 무관세 수출 가능 - 이집트 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 개, 2011년 이집트 QIZ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103억 달러 -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은 이집트 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했고, 2005년 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 지역을 지정한 바 있음
Agadir 협정	2006.7.1	- 회원국 :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FTA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터키 FTA	2007.3.1	- 대(對)터키 수출 :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 대(對)이집트 수출 :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2007.8.1	- EFTA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 대(對)EFTA 수출 :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 대(對)이집트 수출 :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남미공동시장 (MERCOSUR)	2010.8.2 서명	- 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육류, 밀, 옥수수 등 : 대해 즉시 관세 면제 - 우유, 산업제품 : 4년 내 관세 면제 - 기타 협상 품목 : 8~10년 후 관세 면제
아프리카 대 자유무역협정 (African Grand FTA)	2015.6월 Tripartite Summit (삼엘세이크)	- COMESA, SADO(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EAC(동아프리카공동체) 간 FTA - 인구 6억 3천 명으로 아프리카 전체인구의 57% - 아프리카 전체 GDP의 58%(1조 3천억 달러)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 (AFCFTA)	2019.5.30	- 2011년 12월 가나 아크라 개최 아프리카 통상 장관 회의 시 2017년 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2019년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이집트는 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적 -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중 44개국이 서명함
중앙아프리카 경제 통화 공동체 (CEMAC)	논의 중	- CEMAC 국가 :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브라자빌, 가봉 및 적도 기니)
서아프리카 경제 통화 연맹 (UEMOA)	논의 중	- 2004년 6월 이집트는 이집트와 서아프리카 경제 통화 연맹(UEMO) 간의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음 - UEMOA 국가 : 서아프리카 8개국(베닌,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 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이집트-나이지리아 양자 자유무역협정	논의 중	- 이집트-나이지리아 자유무역 협상 중
이집트-탄자니아 양자 자유무역협정	논의 중	- 이집트-탄자니아 자유무역 협상 중

진입장벽

- 관세 인상 : 2018년 9월, 전체 관세 부과 항목 중 약 40%인 5,791개 항목에 대해 관세율 조정
 - 지난 2016년 1월 외환부족으로 인한 관세 인상 후 첫 개정
 - * 주요 품목별 인상률은 2. 시장분석> 나. 수출> 수입규제 참조
- 비관세 장벽 : 소비재 29개 품목 제조공장등록제
 - 이집트 산업통상부는 불필요한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품 제조 공장 등록제(이집트 산업부 시행령 2015-991/992호, 2016-43호)를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
 - * 동 제도의 담당 부서는 이집트 산업통상부 산하 이집트 수출입청(GOEIC)
 -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요가 많이 되어, 등록 기간 동안 국내 기업들의 대(對)이집트 수출 지연 사례 다대
 - 공장등록 필수 수입품목 확대(2019년 1월) : 가방, 포장용품, 이발용품, 용기
 - * HS Code : 4202.11/12/19/21/22/29, 48.19-39.23, 8212.10/2010-8516.31/32-8510.10/20/30 8517.11/12

2 시장 분석

- 지정학적으로 중동·아프리카의 핵심국가이며 유럽·아프리카 진출의 관문
-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풍부한 노동력
- 성장 잠재력이 큰 내수 시장
-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보유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지정학적으로 중동·아프리카의 핵심국가이자 유럽·아프리카 진출의 관문

- 1억 명의 거대 인구와 과거 중동전쟁을 주도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중동·아프리카의 중심국가 역할
 -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 보유
- 아시아와 유럽과 시장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보유 및 운영
 -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이며 아시아와 유럽시장을 잇는 중요한 교역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풍부한 노동력

-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
 -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전체 산업 중 1위
 -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주요 제조 품목은 자동차 및 그 부품, 전자 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섬유류, 소비재 등
-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으며 수에즈 운하 주변 등에 다수의 경제 자유구역^{*}을 운영 중
 - * Port Said Public Free Zone : 수에즈 운하 입구에 위치하며 유럽 및 북서부 아프리카 중계 상업 무역 기지로 부각(입주기업 113개사, 면적 741만 s/m, 설립연도 1975년)
 - 2004년 발효된 ‘이집트-EU 파트너협정’에 따라 이집트에서 생산된 공산품은 EU에 무관세로 수출 가능
-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집트를 EU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
 - 20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52.7%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

성장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

- 약 9,9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내수 시장
 - 인구 기준 중동 1위, 아프리카 기준 3위(1위 나이지리아, 2위 에티오피아)
 -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Post-BRICs(CIVETS, 시베츠) 혹은 NEXT 11 국가로 거론되는 미래 유망 시장
- 전체 인구 중 중산층 이상이 35.7%(3,550만 명)이며 저소득층이 64.3% 차지
 -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저소득층(극단적인 가격시장)과 상류층(고급제품 시장)을 구분하여 차별화한 진출 전략 필요
- 2030년 이집트 경제 규모 8.2조 달러로 세계 10대 경제권 진입 전망
 - Bloomberg 예측에 따르면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에 이어 7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 전망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보유

- EU(유럽연합)를 비롯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GAFTA(범아랍자유무역지대), 터키, EFTA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MERCOSUR(남미공동시장), UEMOA(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체), CEMAC(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 인도, 러시아 등과 협정 체결 추진 중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기본협정 발효
 - 2019년 5월 30일 기본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협상 중
 - 55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할 FTA(자유무역협정)로 참여국들의 총 GDP는 3조 달러가 넘는 WTO 출범한 이후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
 - 현재까지 창설에 합의한 국가는 아프리카 55개국 중 44개국이며, 12억 아프리카 인구와 GDP 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 형성
- 이집트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나 경제협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2005년 이후 800여 개의 중국 기업이 이집트에 진출하여 EU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 중

나. 교역

이집트 교역 동향

- 교역액 기준 세계 44위, 2016년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교역액 감소

- 이집트의 최근 3년 평균 교역규모는 1,000억 달러 이하로 세계 40위 권
- 콜롬비아, 그리스와 비슷하며 페루, 뉴질랜드보다는 규모가 큼
- * (한국) 1조 달러 10위, (EU 28개국) 4조 2천억 달러 1위 (중국) 4조 달러 2위, (미국) 3조 8,882억 달러 3위

이집트 교역 현황, 2015년~2018년 상반기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교역액	953	931	834	487
수출	217	224	250	137
수입	735	708	583	350
무역수지	-518	-484	-333	-212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수입동향

- (국가별)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독일 등
- 한국은 이집트의 12위 수입대상국으로, 2019년 상반기 수입국 중 2.6% 비중을 차지하며 8억 5천만 달러 어치를 수입

대(對)이집트 수출 상위 1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금액	점유율	증감률
1	중국	8,100	11,451	5,895	16.0	19.9
2	사우디아라비아	4,143	5,639	2,896	7.9	1.5
3	미국	3,889	5,406	2,659	7.2	2.4
4	독일	4,524	4,122	2,039	5.5	11.6
5	터키	2,093	3,298	1,848	5.0	26.4
6	러시아	3,626	4,833	1,643	4.5	36.6
7	이탈리아	4,373	3,491	1,575	4.3	0.7
8	인도	2,339	2,286	1,340	3.6	34.1
9	브라질	2,707	3,071	1,213	3.3	20.7
10	우크라이나	2,336	2,234	1,144	3.1	16.7
12	한국	1,834	1,753	950	2.6	12.9

자료 : 이집트 통계청(CAPMAS)(2019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 (품목별) 석유 등 연료, 원자로 및 보일러 기계, 전기전자장비 등

이집트 주요 수입품목, 2018~2019년 상반기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HS code)	2018년	2019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2019/2018년)
1	석유를 비롯한 연료류(27)	14,019	5,610	23.7
2	전기, 전자 기기 및 장비(85)	6,706	3,273	17.3
3	원자로 및 보일러 기계(84)	6,420	3,270	7.1
4	곡물(10)	4,529	2,550	13.9
5	자동차 및 운송수단(87)	4,751	2,082	3.0
6	플라스틱 제품(39)	3,871	1,933	4.2
7	철강(72)	4,420	1,835	13.4
8	철강 제품(73)	3,279	1,415	5.9
9	의약품(30)	2,296	1,170	9.2
10	유기 화합물(29)	1,724	992	14.9

자료 : 이집트 통계청(CAPMAS)(2019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이집트 수입규제 현황

- (수입규제) 7개국 14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14건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2019년 상반기 기준)
 - － 규제품목 : 철강/금속(4건), 화학(1건), 섬유/의류(1건), 전기전자(1건), 기타(7건) 순
 - － 대상 국가 : 중국(5건), 터키(3건), 인도(2건), 한국(1건), 말레이시아(1건), 파키스탄(1건)
- (대한 수입규제) 1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1건 규제 중(2019년 상반기 기준)
 - － 프탈산디옥틸(DOP, Dioctyl Phthalate) : HS Code 2917.32.00
- (관세 인상) 전체 관세 부과 항목 중 약 40%인 5,791개 항목에 대해 관세를 조정
 - － 지난 2016년 1월 외환부족으로 인한 관세 인상 후 첫 개정

주요 품목별 인상률

항목	변동 사항
관광 목적의 기계, 장비류	－ 20%의 관세를 부과 － 관광 목적의 차량은 면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제품	－ 제품 가치의 10% 관세 부과
분유 생산을 위한 원료	－ 관세율 2% 부과
AOI*로부터 수입하는 철도 엔진 부품	－ 관세율 5% 부과
에어컨, 냉장고	－ 관세율 60% 부과
과일	－ 과일별로 10%에서 60%로 차등 부과
식료품	－ 지금까지 없던 항목 275개를 추가하였음
LED 램프	－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
식탁용 식기류, 젓가락	－ 관세율 40% 부과
전기자동차	－ 관세율 면제(VAT만 부과)
천연가스 자동차(1,600cc 이하)	－ 관세율 26%로 인하

* AOI는 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 이집트 주도로 만들어진 범 아랍 방산 물자 생산 업체

- (수입금지) 가금류 등 9개 품목, 101개 품목은 품질 검사 필요

이집트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

1.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2. 닭고기 내장 및 다리
3. 가금류 내장
4.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5. 모든 종류의 석면
6.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7.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8. DDT 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 장관 허가를 받은 후 수입 가능
 - 수입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9. 중고 제품
 - 수입 가능 중고제품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3개 품목군은 수입 가능

※ 중고제품 수입 가능한 13개 품목

1.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2. 차량 및 부품
3. 기계, 장비, 스포츠용품
4. 컨테이너
5. 무기류 : 내무부 장관 허가 필요
6.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 이집트 공군이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
7.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8.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 환경부 허가 필요
9. 자유무역지대(Fre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 투자청 허가 필요
10. 폐지 및 폐잡지 : 정보부 허가 필요
11.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낚시 : Industrial Control Authority의 허가필요
12. 예술품 : 문화부의 허가 필요
13.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 이집트 기업의 해외 건설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만 수입 가능

자료 : 이집트수출입청(GOEIC)



진입장벽

- (비관세장벽) 29개 소비재 품목 제조공장등록제 시행
 - 소비재의 무분별한 수입 억제와 자국 제조업체 육성을 위해 2016년 3월 1일부터 25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를 시행 중. 2019년 1월 대상품목 4개 추가
 - 공장등록 해당품목에 대해 선적전검사(Certification of Inspection, CoI)를 의무화해 통관 시 제시해야 하며, 수출을 원하는 품목마다 선적전검사를 해야 하므로 기업들의 비용부담 가중 (한 품목당 검사 비용 약 1,000달러)
 -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공장등록제 해당 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60%까지 인상되어 경쟁국 대비 (터키, EU의 경우 관세 면제) 경쟁력 저하

○ (통관 절차상의 장벽)

- 이집트 세관 당국은 관세 가액 평가 시 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송장가격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경우 빈번

*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과세가격 산출 시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관세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 대부분의 수입 통관 시 품질조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통일된 통관 검사 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부족

다. 투자

외국인 투자 동향

○ 이집트는 세계 제31위 투자대상국

- 2017/2018년 기준(현재 기준 최신 데이터) 이집트의 FDI 금액은 67억 달러로 세계 31위 이는 핀란드, 페루, 대만 등과 비슷한 규모

이집트의 FDI 유입현황, 2014~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국가명	2014년 (2013/2014)	2015년 (2014/2015)	2016년 (2015/2016)	2017년 (2016/2017)	2018년 (2017/2018)
이집트	4,612	6,925	8,107	7,409	6,798
한국	9,274	4,104	12,104	17,913	14,479
미국	201,733	467,625	471,792	277,258	251,814
중국	128,500	135,610	133,710	134,063	139,043
전 세계*	1,357,240	2,033,803	1,918,679	1,497,371	1,297,153

자료 : UNCTAD

○ (분야별) 석유 분야 투자가 가장 활발

-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석유산업의 비중이 67.3%로 가장 많으며, 제조업(10%), 건설(4.5%) 등이 뒤를 잇고 있음

이집트의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현황, 최근 3개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분야	2015/2016년	2016/2017년	2017/2018년	
				금액	비중
1	석유	6,710	8,192	8,859	67.3
2	금융	475	221	245	1.9
3	부동산	459	420	355	2.7
4	제조업	423	776	1,314	10.0

5	농업	187	21	15	0.1
6	IT 통신	58	39	445	3.4
7	관광	34	51	43	0.3
8	건설	0.7	121	591	4.5
9	기타 서비스	274	530	389	2.9
10	기타	3908	2995	908	6.9
총 FDI 유입액		12,528	13367	13,349	100

자료 : 이집트 중앙은행(CBE)

경쟁국의 투자진출 동향

- 2018년 기준 영국, 벨기에 등이 주요 투자국
 -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영국이 3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벨기에(17.4%), 미국(17.1%), 아랍에미리트(8.2%), 네덜란드(2.7%) 순
 - 한국은 32위로 0.1%의 비중을 차지

대(對)이집트 투자국 상위 10개국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5/2016년	2016/2017년	2017/2018년	
				금액	비중
1	영국	5,944	5,519	4,553	34.6
2	벨기에	678	1,988	2,289	17.4
3	미국	883	1,833	2,244	17.1
4	아랍에미리트	1,329	837	1,075	8.2
5	네덜란드	245	219	349	2.7
6	기타	780	385	324	2.5
7	사우디아라비아	313	344	297	2.3
8	프랑스	251	536	240	1.8
31	한국	224.1	123.3	13.1	0.1

자료 : 이집트통계청(CAPMAS)

투자 진입장벽 : 이집트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 (시스템 미비) 기업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전산화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과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많다는 점
 - 대표적 사례로 부과세 환급지원을 들 수 있으며 부과세 환급 신청을 1년에 한 번 받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양이 많고 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음
- (관료주의) 현지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고위급을 통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요청 시 실무자 선으로 애로사항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

- (불투명한 행정) 수출입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세관 혹은 담당자마다 자의적 해석과 적용 빈번
 - 부가세 환급에 2~3년은 기본으로 소요되며 합의된 관세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 각종 정부 지원금 및 세금 환급 지연
 - 일부 생산용 원자재의 수입 통관이 까다롭고 사전고지 없이 부품 관세율 임의 변경
 - 외국 기업인들의 Work Permit 연장 과정의 모호한 프로세스와 판단 기준
 - 기업 활동에 관계된 법률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경우 빠른 정보 제공 및 공유 필요

가. 교역



한-이집트 수출입 동향

- 이집트는 한국의 제41위 수출대상국, 74위 수입대상국(2019년 9월 기준)

한국의 국별 수출실적 추이, 2018~2019년 2분기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8년		2019년 2분기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	총 계	604,860	5.4	271,244	-8.6
1	중국	162,125	14.1	65,684	-17.0
2	미국	72,270	6.0	36,909	7.2
3	베트남	48,622	1.8	23,106	-1.9
4	홍콩	45,996	17.6	16,206	-29.6
5	일본	30,529	13.8	14,253	-6.3
6	인도	15,606	3.7	8,022	5.8
40	이집트	1,847	39.4	892	-1.6

자료 : KITA

- 2014년부터 교역규모가 증가하다 2016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 추세
 - 엘시시 대통령 집권 후 경제회복세로 2015년 대(對)이집트 무역수지 흑자가 19억 달러로 최고치 기록
 - 2016년 이집트의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으며 양국의 교역액이 24% 감소하였으나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은 줄어드는 추세

한-이집트 교역 현황, 2014~2019년 3분기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수출	금액	2,364	2,179	1,769	1,325	1,847	1,133
	증감	54	-7.8	-18.8	-25.1	39.4	-17.6
수입	금액	532	218	62	90	313	102
	증감	-47.7	-58.9	-71.4	43.5	248.8	-54.8
무역수지		1,832	1,961	1,707	1,235	1,534	1,036
교역액	금액	2,896	2,397	1,831	1,415	2,160	1,402
	증감	13.5	-17.2	-23.6	-22.7	52.7	-

자료 : KITA

- (품목별) 석유제품,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 및 부품 대(對)이집트 수출 주력 품목
 - 2019년 상반기 기준,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단일품목은 석유제품,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 부품, 전력용기기 순
 - 대(對)이집트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석유제품, 식물성물질, 동제품, 기타 비금속광물 순

한국의 대(對)이집트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2018년		2019년 3분기		품목	2018년		2019년 3분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석유제품	237	7,766	202	-14.6	석유제품	90	198.3	124	38.7
2	합성수지	149	3	114	-1.9	식물성 물질	31	27.8	19	-9.6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73	-25	112	-18.9	기타 비금속광물	8	88.6	11	88.7
4	자동차	289	124	93	-53.5	정밀화학원료	7	62.8	9	30.7
5	자동차 부품	100	36	62	-15.2	의류	6	-0.2	7	45.9
6	전력용기기	65	186	56	55.4	기타 금속광물	2	478,743	3	10.0
7	철강판	77	9	49	-17.9	연제품	5	125.5	2	-50.3
8	무선통신기기	6	29.7	36	725.4	농약 및 의약품	1	-2.8	1	5.3
9	기타 석유화학제품	39	8	33	1.1	기호식품	3	50.6	1	-72.8
10	석유화학합성원료	16	1,379	30	174.5	동제품	8	71.8	1	-92.3
11	건설광산기계	27	33.9	26	24.8	어류	1	723.4	1	-31.5
12	농약 및 의약품	43	219.5	20	17.5	무선통신기기	1	-43.7	1	-23.5

자료 : KITA(MTI 3단위)

수출 성공 사례

이집트 수출 성공 사례 분석 : 한국 I 사

- 자국에서 생산이 적어 수입 의존도가 높음
- 한국산 제품의 품질과 기술, 다양한 색상과 편안한 착용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성공 요인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수입증가율(2016년)	대한(對韓)수입증가율(2017년)
902110	정형외과용 제품	23.68	-28.62

• 제품의 비교우위 :

- 튼튼하고 가벼운 제품으로 오랫동안 착용해도 불편함이 적음
 - 다양한 색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집트 정형외과용 깁스 전량 수입에 의존'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이집트 보건부(MOH) 등록필요
성약 소요기간	약 1년 반/첫 접촉 후 제품 테스트 단계 거쳐 최종 납품까지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온라인서치)
바이어 D/B	-
유망전시회	독일 MEDICA(https://www.medica-tradefair.com/)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제품의 보건부 등록필요)** 이집트 보건부 제품 등록 시, 참조국 해당 국가 보건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 필요 (Free Sales Certificate)
- **(해외 전시회 적극 활용)** 대부분의 이집트 의료기기 바이어들이 거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전시회 참여도가 높아 이집트 국내 전시회보다는 유망한 해외 전시회를 통해 바이어 발굴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완제품이 아닌 기계 공급 유망)** 이집트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완제품 수입가격이 높아지고 국가에서 현지 제조업을 장려하는바, 완제품보다는 기계 및 원부자재 수입이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임

 수출 실패 사례

- 공장등록제 제품 등 진입장벽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애로 존재 (실패 사례 없음)

나. 투자

 한국의 대(對)이집트 투자 동향

- (연도별 투자 동향) 2017년 9,350만 달러 투자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기준 신고 3건, 4,300만 달러 투자

한국의 연도별 대(對)이집트 직접투자 동향

(단위 : 건, 개, 천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신고건수	15	9	13	7	15
신규법인수	5	1	2	1	3
신고금액	40,870	34,101	125,157	23,532	28,028
투자금액	28,885	29,629	93,505	4,110	4,36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투자현황) 2019년 상반기 누계액 기준 제조업이 가장 많음
 - 제조업 누적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3억 2,817달러로 총 투자 신고 금액(6억 2,000만 달러)의 절반을 차지하며, 도·소매업, 건설업 순

한국의 대(對)이집트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2018년		2019년 상반기		누계액	
	신고건수	신고액	신고건수	신고액	신고건수	신고액
제조업	6	23,032	11	27,850	101	328,176
건설업	0	0	0	0	16	4,291
도소매업	0	0	0	0	9	4,687
기타	1	500	4	178	77	283,229
총계	7	23,532	15	28,028	203	620,38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유형별 투자 동향)
 - 투자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의 투자액이 3억 7,100만 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투자자 규모별 대(對)이집트 투자금액 현황

(단위 : 천, 천 달러)

구분	신규법인(개사)	신고접수	신고액	투자액
대기업	8	81	3,754,179	371,261
중소기업	7	22	2,638	728
기타	1	6	180	70
총계	16	109	3,756,997	372,05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기업 투자진출 현황

- 총 진출기업 29개로 주로 제조업 진출이 많음

업종별 대(對)이집트 진출기업 현황

업종	기업 수	대표기업
제조업	10	삼성전자(주), LG전자(주), SH케미컬, C&C Corporation, 텍스켄, 을화섬유, 성지산업, 일해, 성안 이집트, 우진 플레임
도소매	4	포스코대우(주), 한산실업(주), 그랜드팔콘, 다이렉션 엑스포트 앤 임포트
운수업	1	세이프티 스카이 인터내셔널
서비스업	10	금호타이어, 현대모비스, 캔두코리아, 한국타이어, 현대종합상사, 삼성 SDS, Mediance MEA Co., LTD, 삼성물산(주), 샴스코, 팩트라 인터내셔널
건설·공사업	2	GS건설(주), 두산중공업
기타	2	현대로템, DANA Petroleum
합계	29	-

자료 : KOTRA 카이로무역관 자체 자료(2019년 6월)

투자 성공 사례

이집트 투자 성공 사례 분석 1 : (주)제이에스티

• 설립개요

설립 연도 및 위치	2018년 2월, 알렉산드리아
설립 형태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 법인/단독
생산품목	Waste-to-Energy 엔지니어링 솔루션 제공, 폐기물 처리 플랜트 투자/건설 : 생활폐기물 선별, RDF(고형 폐기물 대체 연료) 생산, 소각처리 설비 등.
특징	이집트 진출 최초 환경 솔루션 중소기업

• 사업 현황(2019년 10월 현재)

- 종업원 : 3명(한국인 2명 포함)
- 프로젝트 현황 : 알렉산드리아 몬타자 폐기 처리 플랜트 내 RDF 생산라인 투자/건설(일 200톤 규모의 고열량 RDF 생산 중, 알렉산드리아 주 정부와 BOT 계약, 기간 15년)
- 영업 현황 :
 - 1) 가르비아 주 정부와 MOU 체결 후, 주 정부 내 위치한 두 곳의 폐기물 처리 플랜트(현재 일 1,200톤 처리 가능)의 노후화 시설 교체 및 일 4,000톤의 폐기물 처리 플랜트로 증설 및 일 1,000톤 규모의 RDF 생산 시설 신설 및 일 500톤 규모의 소각 설비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조사 중
 - 2) 이집트 군수부와 MOU 체결 후, 이집트 27개 주 정부 내 소재한 65개의 폐기물 처리 플랜트 노후화 시설 교체 및 폐기물 처리 설비 신설, RDF 생산 라인의 신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중

• 성공 요인

- 2017년 2월부터 1년간 매월 현지 출장을 통한 이집트 환경 시장분석 및 최적의 현지 파트너사 물색 작업 진행
- KOTRA 카이로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지원을 통한 현지 법인 설립,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협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지원
- 이집트 폐기물 특성에 맞는 처리 설비의 최적화 솔루션 제공 및 신제품 개발/공급
- 이집트 군수부, 환경부를 포함하는 유관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및 업무 협조
- 현지 법인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신뢰도 증진

이집트 투자 성공 사례 분석 2 : LG 전자

• 설립개요

설립 연도 및 위치	1990년 10월, 이스마일리아 산업단지, 2014년 9월, 10th of Ramadan으로 공장 신축하여 이전
설립 형태	생산, 판매법인/단독
생산품목	TV/세탁기 생산, 전기/전자제품 도매 소매업 및 수리 서비스
특징	이집트 진출 최초 한국 기업

• 생산 및 영업 현황

- 종업원 : 500명(한국인 14명 포함)
- 생산현황(연간) : TV 130만 대, 세탁기 10만 대
- 영업 현황 : 이집트 내수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량의 70%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 성공요인

- 1990년부터 TV 부품 생산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꾸준히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LG제품 생산하여 공급
- 기술변화에 맞춰 신제품 적기 출시로 시장 선도
- 능력 있는 파트너 선정 및 원활한 관계 유지
- 정기적인 기술지도, 철저한 A/S 등으로 거래선과의 신뢰 구축

이집트 투자 성공 사례 분석 3 : 삼성 전자

• 설립개요

설립연도 및 위치	2012년, 베니수에프 산업단지
설립형태	생산법인/단독
생산품목	TV 완제품
특징	생산된 제품의 80%가 인근 40개 국가로 수출됨

• 생산 및 영업 현황

- 종업원 : 1,520명(한국인 17명 포함)
- 생산현황(연간) : 32인치부터 75인치까지 12종류의 TV 약 200만 대 생산
- 영업 현황 : 내수 판매는 물론 인근 국가로 수출도 하고 있음

• 성공 요인

- 생산된 제품의 80%를 인근 국가들로 수출해 단일 외국 회사 기준, 삼성의 이집트 수출 기여도는 1등에 해당
- 능력 있는 파트너 선정 및 원활한 관계 유지
- 철저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현지 인력관리

투자 실패 사례

이집트 투자 실패 사례 분석 : D사

• 설립개요

설립연도 및 위치	2009년, 10 th Of Ramadan City 산업단지
설립형태	2013년
생산품목	섬유기계 부품(환편기 실린더 제조업체)
특징	이집트 직원 40명, 한국인 관리인 1명

• 실패 요인

- 불안한 정치적 상황 : 2011년 아랍의 봄, 2013년 쿠데타 등 예상치 못한 정정 불안
- 정확하지 않은 시장조사 : 실제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 후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투자
- 전문 관리자의 부재 : 제품과 이집트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관리자 고용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관리자가 제 역할을 수행 못함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한-이집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교역조건 개선

○ 우리 수출업계의 FTA 추진 필요성 제기

- 2016년 5월 산업통상부 장관 민관합동사절단으로 이집트 방문 시 수출업계는 한-이집트 FTA 추진 검토 건의 : 이집트 내 외환부족, 수입 장벽 확대, FTA 미체결로 인한 상대적 교역 조건 열위 등으로 인해 수출여건 지속 악화

- 한-이집트 경제위원회 창립(2019년 10월) : 대한상의회와 이집트기업인연합회가 만든 양국 간 신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FTA 추진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이집트와 FTA가 발효 중인 수출경쟁국 기업과의 경쟁력 저하 심화
 - 이집트는 16개 FTA 협정이 발효 중으로 그 중 EU 및 터키와의 FTA는 우리기업들의 이집트 시장진출에 있어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EU산 공산품은 2019년 1월부터 대부분 무관세로 이집트에 수입
- 우리 제품의 유럽산, 터키산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로 시장점유율 하락
 - 2019년 1월 발효된 이집트-EU FTA 영향으로 한국산 승용차, 기계 부품, 의료기기, 소비재 등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이집트 내 시장점유율 하락
-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약 1억의 인구 대국)을 지닌 이집트와의 FTA 추진은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연장 노선에 운용될 전동차 256량 공급 계약(현대로템)
 - 이집트 정부와 EDCF 차관약정서 서명(2018년 8월)
 - 이집트 의회 최종 승인(2018년 12월)
 - * 차관규모 3,140억 달러/2020년 4월경부터 전동차 공급 예정
- 카이로 메트로 5호선 공사 수주 지원(현대로템)
 - 총 24km 연장 17개 역사, 최대 30억 달러 규모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이집트는 한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 접촉
 - 현재 이집트는 특정 국가에 EDCF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의 EDCF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
- 철도 신호체계 현대화 사업 참여
 - 이집트 교통부는 총 길이 1,089km, 총사업비 170억 EGP(약 10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전국적인 철도 신호체계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
 -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나가하마디-룩소 구간(118km, 16개 역사) 철도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약 1억 2,000만 달러의 EDCF를 지원
 - 2018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컨소시엄이 이집트 정부와 40억 원 규모의 철도 신호 현대화사업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확대

- 이집트의 국방 예산은 2015년 기준 57억 달러로 추산
 -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규모이나 사우디아라비아(약 580억 달러), 이스라엘(약 160억 달러) 등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
- 한-이집트 뉴욕 정상회담 합의(2018년 9월, 유엔총회)
 - 고위급 교류와 정례적 정책 협의 지속
 - 양국 간 논의 중인 한국 K-9자주포 및 해군 호위함의 이집트 도입 관련 관심과 지원
- 최근 양국 간 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 활발
 - 방이 : 한국 국방차관(2017년), 해군참모총장(2017년), 방위사업청장(2018년)
 - 방한 : 이집트 국방장관(2017년), 방산물자부장관(2017년)

경제발전 경험공유 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추진

- 2019/2020년 이집트 정부의 KSP 수요 발굴
 - Science and Technolog Park for Electronics Research&Industry(과학연구부)는 산업 폐기물 처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통상산업부) 등 총 5개 분야의 KSP 사업을 한국에 요청
 - 특히, 전자 산업 분야 KSP에 이집트 정부의 관심 다대
- 2018/2019년 전자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KSP 사업 추진
 - 이집트 내 현금거래 비중을 줄이고,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급 결제 시스템 개발
- 2017/2018년 이집트 조세제도 및 행정 개선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 수행 완료

Ⅲ. 진출전략

- 강력한 경제개혁을 바탕으로 Post BRICS, Next-11로 거론되는 미래 유망시장 공략
- 이집트 정부의 정책 수요에 맞는 상호 호혜적 사업 추진으로 포괄적 협력 관계 공고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이집트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이집트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활용 • AfCFTA 등 이집트 FTA네트워크를 활용한 진출 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 중산층 청년층을 겨냥한 유망 소비재 발굴 • 비관세 장벽 대응, 현지 프랜차이즈 진출을 통한 수출 확대
WO 전략 (기회 포착)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 국내외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플랫폼 적극 활용
WT 전략 (위험 대응)	• 이집트 산업발전 단계에 맞는 중급기술 제품 공급 추진 • 소비계층별 유망품목 및 공략방안 설정

진출전략
유희설비 이전을 통한 생산기지로 활용
소비재 분야 프랜차이즈 진출
이집트 정책 수요에 맞는 사업 개발
중급 기술제품 수출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유희설비·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기지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이집트 정부, 제조업 육성 정책 실행을 위해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
- AfCFTA 발효 및 다수의 경제권과 FTA 체결한 이집트를 진출기지로 활용 가능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집트 산업통상 발전 전략 2016~2020’
 - 2017년 5월 발표한 이집트 산업통상부의 산업발전 전략
 - (주요 정책 목표) 연간 산업 성장률 8% 증가, 제조업 분야 GDP 비중 18%에서 21%로 확대, 연간 10%대의 수출 비중 증대 등
 - (우대 분야)
 - * 산업강화·수입축소 및 수출증대 분야 : 엔지니어링, 화학, 섬유 및 의류, 건축기자재 산업
 - * 현지 밸류 체인과의 통합 분야 : 재생, 포장, 화학, 엔지니어링, 신재생에너지, 농업, 건축기자재 등
- AfCFTA 등 이집트의 FTA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국 진출기지로 활용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발효(2019년 5월)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기회 확대
 - 이집트의 FTA 네트워크 : 아프리카(AfCFTA, COMESA), 유럽(EU, EFTA), 아랍(GAFTA, 터키, AGADIR, 7개 개별국 양자FTA), 중남미(MERCOSUR) 등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희 설비·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기지로 활용
 - 이집트 업체는 단순 수입보다 Joint Venture를 통한 생산공장 설립에 관심 다대
 - 이집트 정부 역시 공장부지 및 노동력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생산설비투자나 기술이전 등을 제안하는 사례가 다수
 - 우리나라에서는 구형 제품이라도 이집트에서는 충분히 시장성이 있으므로 유희설비 이전을 통해 이집트를 생산기지로 활용, 이집트 내수시장 및 FTA 체결 국가 진출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
- 유희 설비의 경우 주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수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희 설비에 대한 수입규제는 비교적 느슨한 편
- 유망분야 : 섬유, 석유화학, 전자제품, 철강 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분야	이집트 생산설비 수입 상위 품목(HS Code) *수입상위 10위권 내 한국제품 기준
섬유	Reactive Dyes&Preparations Based Thereon(320416)
석유화학	엔진(8412), 기계류, 혼합기, 반죽기, 파쇄기, 분쇄기 등(847982)
전자제품	세탁기 제조시설(845090), TV&LCD 제조시설(852990)
철강 산업	Galvanized Steel Sheets Machines(8462), Steel Bars Machines(846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Automotive Assembly Line(84798999), Quality Gates(90241000)

나. 소비재 분야 프랜차이즈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소비재 진입 장벽 존재(공장등록제, 제품 인증의 까다로움)
- K-Beauty 무풍지대, 진출 가능성 무궁무진
- 인구 구성 중 청년층의 비중이 높고 SNS 활용도 높아, 감수성 높은 젊은 층 여성 공략
- 개별 제품 수출 대신 국내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방식 진출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화장품 진입장벽 높음 : 공장등록제, 제품인증
 - 화장품 포함한 소비재 29개 품목 공장등록제 시행으로 국내기업 수출 지연 사례 다대
 - 화장품 등의 제품은 할랄 인증 등 제품 인증 과정이 까다로움
- 거대 내수시장 진출 가능성 무궁무진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집트 화장품 시장 성장률은 평균 25.6%로 향후 고도성장 예상 (자료 : 유로모니터)
 - 한국산 제품의 경우 페이스북 페이지, Souq.com(대표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 업체를 통한 판매보다 개인업자 위주로 유통되는 것이 현실
-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구매력이 강화되는 추세
 -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SNS 사용 증가로 해외 스타 및 인플루언서들의 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이집트 여성들은 감수성이 높고 순수한 측면이 있어 한국의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의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상품포장 등에 매료될 가능성 다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 장벽 타개책으로서의 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 진출
 -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공장등록제 승인지연 등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화장품 프랜차이즈 브랜드 진출 필요
 - * '토니몰리',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등 로드숍 브랜드 등

- 가격에 민감하고, 구매력은 낮으나고가 유럽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으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의 로드숍 브랜드가 진출에 적합
- 2020 K-Beauty in Cairo 개최
 - 주이집트 한국문화원과 협업으로 K-Beauty 소개, 시연회, 전시 및 B2B 상담회 개최
 - 국내 화장품 협회관계자, 유망 화장품 프랜차이즈 기업, 전시회 참가기업 등을 초대하여 현지 유관기관, 대형 유통망 업체, 화장품 전문 바이어 등과의 비즈니스 플랫폼 마련
 - 이집트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들을 초청, SNS를 활용하여 사업 및 상품 홍보
- 현지 여성들의 관심 및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전방위 네트워킹 강화
 - 이집트 고위인사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화장품 트렁크 쇼 개최
 - 한국 기업 및 정부 대표단 면담 시 증정품으로 화장품 적극 활용

다. 환경산업 B2B 협력 강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이집트는 대표적인 물 부족 및 환경오염 국가로 세계자원연구소는 물 부족 국가 중 43위로 평가
- 폐기물 및 폐수처리, 해수 담수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 고조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집트 지속가능발전전략(SDS) 2030’ 에너지·환경 분야 목표
 - (에너지) 에너지 자급률 확대를 통한 자원안보 강화, 경제성장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 구현, SDGs 이행과 연동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보호 목표
 - * 전력생산을 위한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매장량 유지
 - (환경) 환경오염 개선, 폐기물 관리, 생물 다양성과 환경체계 보전, 국제적 지역적 환경협약 준수 및 국내 정책 내재화
 - * 물 소비 비율(107%→80%), 국내폐기물 수거 및 처리 효율성 강화, 나일강 보호계획, 산업시설 수자원 관리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 확고 및 관련 제도 개선
 - 이집트 쓰레기 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에 예산 증액
 - * 이집트 기획부 2019/2020 회계연도 예산 약 2.5억 이집트 파운드 증액
 - * 지역별 쓰레기 처리 효율성 강화, 쓰레기 축적 방지 및 안전한 투기, 환경파괴 중지 등의 목적
 - 이집트 각료회의 폐기물 처리 법안 승인
 - * ‘폐기물 관리 규제청(WMRA)’을 신설해 쓰레기 처리 관련 지역·국제기관과 협력하고 각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외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모델 개발
 - － 환경산업기술원(KEITI) 등 유관기관과 협력, 우리 환경기술 기업의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 －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KOTRA의 강점을 기능적으로 융합하는 협업 모델로써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무역사절단 사업 추진(2020년 상반기)
 - － 세미나 및 상담회, 환경산업 관련 현장 시찰, 관계 정부 기관 면담 등
- 환경 분야 중소형 프로젝트 참여
 - －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보다 중소형 프로젝트 집중 발굴
 - － 이집트 정부가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수 처리 및 폐기물처리 분야 유망

프로젝트 예시

- 프로젝트명 : Tanta Waste Water Treament Project
- 위치 : 이집트 가르비아 주
- 발주처 : 이집트 주택부, 가르비아 주 정부
- 현추진단계 : 계획 중
- 입찰방식 및 시기 : 2019년 말 사전 타당성 조사 입찰
- 재원 및 기간 : 국제금융기구와 협의 중(1억 2,000만 달러), 2년
- 내용 : 기존 시설 노후에 따른 교체, 일일 처리용량 15만㎥
- 진출유망품목 : 폐수처리설비, 수자원 재활용 관련 설비, 처리약품, 노즐 등

3 한-이집트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한-이집트 FTA 추진 검토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수출 여건 지속 악화로 우리 수출업계의 FTA 추진 검토 지속적 건의
- 이집트와 FTA가 발효 중인 수출 경쟁국 기업과의 수출 경쟁력 저하 심화
- 차세대 수출시장으로서의 이집트의 잠재력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우리 수출업계의 FTA 추진 필요성 제기
 - 2016년 5월 산업통상부 장관 민관 합동사절단으로 이집트 방문 시 수출업계는 이집트와의 FTA 추진 검토 건의
 - * 이집트 내 외환부족, 수입 장벽 확대, FTA 미체결로 인한 상대적 교역조건 열위 등으로 인해 수출 여건 지속 악화
 - 한-이집트 경제위원회 창립(2019년 10월) : 대한상의회와 이집트기업인연합회가 만든 양국 간 경제협력채널을 통한 FTA 추진 의견 수렴
- 이집트와 FTA가 발효 중인 수출경쟁국 기업과의 수출경쟁력 저하 심화
 - 이집트는 16개 FTA 협정이 발효 중으로, 그중 EU 및 터키와의 FTA는 우리기업의 이집트 시장진출에 있어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EU산 공산품 2019년에 대부분 무관세로 대(對)이집트 수출해, 대(對)이집트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 감소 및 시장점유율 하락
-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약 1억의 인구 대국)을 지닌 이집트와의 FTA 추진은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수혜 예상품목 발굴 및 활용
 - 양국 간 산업구조 차이로 민감품목이 없는 상황으로 FTA 효과 극대화 기대
 - * 이집트 제조업은 경쟁력 부족과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가 대부분으로 원유, 가스, 기초 원자재 등을 한국으로 수출
 - * 이집트가 비교적 경쟁력을 보유한 농산물 분야는 인접한 유럽, GCC 국가가 주요 수출 대상으로, 곡물류 1위 수입국인 특성으로 인해 대(對)한국 농산물 수출 확대 및 국내 농업계 피해 가능성은 미미
- 한-이집트 FTA에 대한 현지 업계의 반발 최소화
 - 단순수출 중심이 아닌 현지기업과의 기술제휴, 합작투자 등 현지기업과 네트워크 및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FTA 협상의 조기 협상 개시 지원

-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섬유, 전자제품 분야와 같이 현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에서 우리기업과 현지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확대 필요

나. 교통기반시설 프로젝트 협력 확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이집트 정부는 2008년부터 ‘철도시설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
- 철도 신호 시스템 현대화 등 신규 프로젝트 수주 플랫폼 구축
- 카이로 메트로 프로젝트 등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집트 정부 2008년부터 ‘철도시설 현대화 계획’ 추진 중
 - 이집트는 부실한 철도 안전 시스템 등으로 연간 철도사고 발생 1천 건 상회(20018년 2월 열차 충돌로 약 50명 사망 및 부상 및 8월 알렉산드리아 열차사고 등)
 - 엘시시 대통령 이집트 전역의 철도 시스템 점검 지시(2018년 2월), 철도 서비스 민영화 허용법 하원통과(2018년 3월)
-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연장 노선에 운용될 전동차 256량 공급 계약
 - 이집트 정부와 EDCF 차관약정서 서명 및 이집트 의회 승인(2018년 12월)
 - 양국 금융기관 간 세부 금융지원 방식 협의 필요
- 카이로 메트로 5호선 공사 수주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참여 검토
 - 총 24km 연장 17개 역사, 최대 30억 달러 규모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이집트는 한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 접촉 전망
 -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지원 등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 검토 필요
- 철도 신호체계 현대화 사업 참여
 - 이집트 교통부는 총 길이 1,089km, 총사업비 170억 EGP(약 10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전국적인 철도 신호체계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
 - 2018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컨소시엄이 이집트 정부와 40억 원 규모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 (룩소-라가하마디 구간) 건설링 용역계약 체결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이집트 발주처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철도운영 역량배양 지원 CSR 사업 추진

- 이집트 철도학교 개최(Egypt Metro&Railway Academy)
- 일시 및 장소 : 2020년 하반기/카이로
- 참여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집트 교통부, 이집트 철도청, 한국 관련 기업 등
- 사업내용 : 현지 철도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철도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교육, 철도시설 현장 방문지도 등
- CSR 활동 등을 통해 발굴한 수요를 반영, 국내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 배경 :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선진 철도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 일시 및 장소 : 2020년 하반기/KOTRA 본사 회의실
 - 사업내용 : CSR 사후관리 및 후속상담 성격의 핀포인트 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 * 필요할 때 이집트 철도 당국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관 간 면담을 통해 재원확보 방안 등 협의

다. 산업·투자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추진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이집트 정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노하우 전수에 대한 수요 존재
- 전자 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이집트 정부의 정책 수요 활용
- KSP 사업을 활용한 해당 산업 현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 기반 조성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집트 정부의 산업육성 노하우 전수에 대한 수요 존재
 - 이집트 정부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KSP 수요 파악
 - 전자 산업 및 제조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강화 분야 등
- Egypt Makes Electronics(EME)
 - 엘시시 대통령은 전자제품 제조업 육성을 위한 EME 이니셔티브 적극 추진
 - 이집트의 수출 증대와 전자제품 수입의존도를 낮추면서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 예상
 - 전자 산업 육성의 핵심은 고부가가치 전자회로시스템 발전과 노동집약적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
- KOTRA-이집트 국제투자협력부와 투자협력 MOU 체결(2019년 2월)
 -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사절단 파견 협력, 투자 노하우 공유 등의 협력사업 추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이집트 수요 맞춤형의 전략적인 KSP 발굴 및 제안
 - 전자 산업 및 제조 분야 육성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의 수요에 부응해 이 분야 KSP 제안 등 적극적인 수요 발굴
 - 환경 산업(폐기물 처리 등) 등 정부 관심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리 기업 진출 방안과 연계해 KSP 프로그램 제안
- 이집트 정부와의 협력 강화로 KSP 적극 참여 유도
 - 우리 정부의 대(對)이집트 KSP 실행 잠재성 재평가
 -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문가 콘퍼런스 개최 등 양국 간 네트워킹 강화 사업 시행

4 진출 시 유의사항

소비재 제품 제조공장 등록제 시행	독점계약 체결 시 통관 절차 및 문제점
■ (현황) - 이집트 산업통상부는 불필요한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가능한 29개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출품 제조공장 등록제 시행 중(2016년 3월 1일부) -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이 되어, 등록 기간 동안 국내기업들의 대(對)이집트 수출지연 사례 다대 ■ (대응전략) ☞ KOTRA 카이로무역관을 통해 진행 사항 파악 및 해당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등록 서류 제출 이후 지속적인 진행사항 파악 필요	■ (현황) - 이집트 바이어가 거래 한국 기업 대한 독점 수입권을 주장하며 세관에 등록 시 이집트 세관은 해당 이집트 기업의 수입 건을 제외한 다른 이집트 기업의 수입은 통관 불허 - 한국 기업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이집트 기업과 결별하고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제품 공급할 경우, 이전에 맺은 독점 계약 해지 및 신규 대리점과 계약 내역이 세관에 통보, 반영되기 전까지 제품의 통관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응전략) ☞ 이집트 바이어와 거래 시 일반 대리점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나, 불가피하게 독점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집트 기업이 독점권을 갖는 제품의 브랜드나 모델명 명시 - 그렇지 않을 경우, 이집트 세관에서 신고하는 이집트 기업이 해당 한국 기업의 모든 제품에 대한 독점적 통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	일방적인 구매계약 취소
■ (예시) A 프로젝트(전력 제품 수출 사업) - 공급했던 제품의 HS 코드 분류를 세관에서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 제품에 부과된 관세율 상승(10% → 30%) - 바이어 측에서 관세율 상승으로 추가된 금액을 한국 업체에 부담시켜 차액을 빼고 송금 ■ (대응전략) ☞ 동일한 HS 코드라도 제품 스펙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수출 전 바이어를 통한 세관 확인 필요	■ (예시) B 프로젝트(철도 수출 사업) - 이집트 정부에서 제3국 자금 지원으로 입찰 진행하여 한국 제품이 선정되자 재입찰 진행 ■ (대응전략) ☞ 사업과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필요
수출 절차 및 정책의 일방적 변경	수입자 재무제표 이슈
■ (예시) C 사 수출 (소비재 기업) - 기존에 진행하였던 통관 테스트가 사전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바뀔에 따라 수출 지연 ■ (대응전략) ☞ 최근 통관 테스트 관련하여 공지 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 전 바이어에게 통관 테스트 재확인 필요 ☞ 세관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정보 확인 필요	■ (현황) - 이집트 업체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고 정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등의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움 ■ (대응전략) ☞ 보수적인 접근 및 제3의 소스, KOTRA 카이로무역관을 통한 정보 확인 필요

현지 입찰 관행	비효율적 행정과 관행
■ (현황) D 사 입찰 (의료기기) - 이집트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위인 한국 브랜드가 이집트 정부 입찰에서는 원산지 제한이 있어 입찰에서 어려움을 겪음 ■ (대응전략) ☞ 원산지 제한은 이집트 정부 입찰 시 의료기기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책적인 부분이라 단기 해결은 어려우나 대사관, KOTRA를 통한 협조 문서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상담 필요	■ (현황) - 관료주의와 전산화되지 않은 시스템 등이 야기하는 비효율적 행정과 관행 만연 * 예시 : 부가세 환급 지연, 각종 정부 지원금 및 세금 환급 지연 등 - 법률과 규정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 ■ (대응전략) ☞ 애로사항에 대해 현지 정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해야 하며, 정부 당국의 고위급 접촉은 KOTRA 카이로무역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 가능함. ☞ 실무 담당자 등 관계자와의 긴밀한 접촉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하는 방법으로 개선방안 도모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901831	수입관세율(%)	5
	수입액('18/US\$백만)	3.7	대한수입액('18/US\$백만)	1.03
AD 주사기 (자체파괴형)/ AD 주사기 제조기 라인	선정사유	이집트 보건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주사기 사용을 금지하고 2020년 6월부터 AD 주사기를 도입 예정		
	시장동향	- 일반 주사기는 재사용이 가능해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으나 스마트, AD 주사기는 1회 사용 후 플런저가 부러지거나 주사가 끝날 때 바늘을 수축시켜 재사용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 - 이집트는 매년 평균 20억 개의 자체파괴형 주사기가 필요하므로, 품목의 보유량에 따른 전략이 요구		
	경쟁동향	아랍 산업화기구(AOI)와 보건부는 자체 파괴형 주사기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첨단 의료기기에 관한 보건부의 모든 요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력 의정서에 서명함		
	진출방안	- WHO는 각국에 2020년까지 현재 사용하는 주사기를 모두 스마트 주사기로 바꿀 것을 촉구했고, 이에 이집트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림 - 한국 기업은 연간 20억 개의 자체 파괴형 주사기 수출물량을 확보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집트 보건부 현장방문과 협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품목 현지 제조 등을 통해 확보 가능 - 한국산 주사기는 이미 이집트 시장에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음 - 저렴한 인건비, 쉬운 주사기 생산 과정, 이집트 정부의 현지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이집트 내 많은 주사기 생산 공장 존재하고, 그중 다수는 한국산 제조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한국산 제조기 라인으로의 교체도 용이할 것으로 보임		
품목명 2	HS Code	850650	수입관세율(%)	30
	수입액('18/US\$백만)	1.50	대한수입액('18/US\$백만)	0.001608
염화리튬배터리 (스마트계량기)	선정사유	스마트 계량기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시장규모는 이집트 현지 생산이 없기 때문에 수입량에 따라 결정됨		
	시장동향	전기 및 신재생 에너지부는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60만 개의 전기 계량기를 설치함. 에너지부는 2020년 중반까지 전기 계량기의 수를 1,000만 개로 늘릴 계획		
	경쟁동향	중국 EVE와 Ramway, 미국 Omni Cel (Exell 배터리)와 Streamlight, 한국 Xeno와 Tekcell(비츠로셀사), 일본 Panasonic		
	진출방안	- 수도계측기기 제조회사인 Metrotec Egypt Co. 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진출 핵심은 '보급'과 현지 이집트 공장과의 협력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장현황은 아래와 같음 - 계량기의 85%는 정부 입찰자를 통해 공급 - 15%의 계량기가 주거용 컴파운드에 공급되기 때문에 보급은 공장에서 필요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이집트와 한국 간의 가장 편리한 이집트 시장 진출 방법임		

품목명 3	HS Code	8452	수입관세율(%)	면제
재봉틀 및 재봉틀 바늘	수입액('18/US\$백만)	21.62	대한수입액('18/US\$m)	0.31
	선정사유	이집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91조(2015년), 제992조(2015년), 제43조(2016년), 제44조(2019년) 등의 법령을 제정했고, 이 법령들은 수입 허가 절차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옴. 특히, 규제대상 제품의 외국 공장, 제조업자 또는 상표 소유주들은 이집트로의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 이집트의 GOEIC(General Organization of Export and Import Control)에 등록해야 함		
	시장동향	의류와 완제품 의류는 GOEIC의 규제품목에 포함되어 많은 현지 회사들은 현지에서 의류 제품을 완성하고 GOEIC의 등록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섬유 기계를 수입		
	경쟁동향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 1위인 Jack은 산업용 재봉틀, 자동 커터, 절전모터, 고급기계공구, 지능형 생산관리시스템에 주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7,0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 증권거래소 메인보드(주식코드 : 603337)에 상장됨		
	진출방안	한국 기업들은 Egy Stitch&Tex(2020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와 같은 유명한 이집트 전시회 참석하는 것이 좋은데, 해당 행사는 정부 관계자, 주요 프로젝트 소유자, 국영기업, 다국적기업, 섬유공장 및 많은 바이어들이 기회를 엿보며 참석하기 때문		
품목명 4	HS Code	8529	수입관세율(%)	2 또는 면제
텔레비전 부품	수입액('18/US\$백만)	234.20	대한수입액('18/US\$m)	83.84
	선정사유	- 이집트는 텔레비전의 현지 생산이 없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텔레비전 부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수입된 부분이 전자유리시트(HS코드: 85299040000)이며, 2017년 수입액은 186,451,687 달러임. 2017년 이집트의 주요수입국은 한국(55.42%, 103,322,294 달러), 중국(22.26%, 41,506,989 달러), 독일(10.51%, 19,595,488달러)		
	시장동향	초고화질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텔레비전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중국의 HiSense와 TCL, 한국의 LG와 삼성, 그리고 이전에 언급된 대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브랜드는 거의 없음		
	진출방안	한국 기업들은 홍보 메일을 보내거나, 바이어들을 한국에 초대해 국내 공장을 방문 시키고, 일대일 비즈니스 회의나 사이버 회의를 주선하는 방법으로 이집트 현지 가전업체에 직접 접근해야 함		
품목명 5	HS Code	8703800000	수입관세율(%)	면제
전기자동차	수입액('18/US\$백만)	-	대한수입액('18/US\$m)	-
	선정사유	- 이집트의 전기차 시장은 2019년에 상당히 발전함. 이집트의 군수공업장관인 Mohamed El-Assar는 2019년 9월 6일 금요일에 군수공업기구와 중국 길리 사와의 전기자동차 생산에 대한 MOU를 맺는 행사에 참석함 - 또한, 이집트 정부는 한국기업에게 이집트 내에서 전기자동차의 생산을 시작할 것을 촉구함		
	시장동향	- 이번 조치는 군수공업부 내에서 전기차 제조의 현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 - 이런 움직임은 기존 연료차를 대신하여 전기차를 사용하는 세계적 추세와 일치		
	경쟁동향	중국 길리 사: 전기차를 제조하는 MOU를 맺음		
	진출방안	- 이집트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이집트 기업과 한국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을 맺고, 더 나아가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는지 알고자 노력 중임 - 배터리 또는 충전기 등 특정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 간의 컨소시엄의 체결은 미래에 이집트 내에서 전기차 완제품을 생산하여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로 수출할 수 있을 것임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고체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선정사유	- 2019년 Egy Waste & Recycling Expo (EWRE) 폐기물 & 재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재활용 및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 분야에서 가장 유망하고 미개척된 시장 중 하나로 평가 - 폐상자 가격은 톤당 대략 450달러인 반면에, 캔스크랩의 톤당 판매가격은 1,500 달러로 추산
	시장동향	폐기물 에너지 공장은 이집트의 재활용 산업에서 유망하고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 전기나 가스를 생산하는 재활용 공장이 매우 유행하는 중임. Garbage Collectors Union의 대표인 Shehata Al-Moqadis씨에 따르면 이집트는 2018년 5월 21일 이탈리아와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MOU를 체결
	경쟁동향	영국의 BlueMac은 이집트와 폐기물 관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MOU를 체결함.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집트 환경부에 접근하여 합작, 파트너십, 협력, 심지어 MoU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중임
	진출방안	이집트의 환경부 장관 Yasmine Fouad는 이집트가 도시의 고체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힘. 2020년의 신도시 고체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쓰레기 매립장의 재활용을 통한 인프라 개발, 위생적인 새로운 매립장뿐만 아니라 고정식 및 이동식 중간 정화조 설립을 목표로 한다고 함. 따라서, 위의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들은 정부 계획을 추진하는 이집트 에이전트들에게 유망 현재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수거 시스템 - 정렬 기계류 - 운송 차량 - 유기성분 재활용을 위한 처리 및 폐기 시스템 개발과 도시의 고품 폐기물 재활용
품목명 2		
인프라	선정사유	이집트투자청에 따르면 운송 분야는 이집트의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
	시장동향	- 도시화 진행으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 정부 주도로 카이로 지하철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경쟁동향	-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집트 - 이집트는 스스로 글로벌 물류의 주요 허브로서 포지셔닝하는 중 -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이집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음
	진출방안	
품목명 3		
플랜트	선정사유	- 이집트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이집트 산업 생산성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 - 산업부는 2019/2020 회계연도까지 8%의 산업 생산성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GDP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18%에서 2020년까지 21%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 중

	시장동향	- 이집트 산업부는 제조업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유망 및 유선 순위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지 공급체인과 글로벌 공급체 인간의 통합을 이뤄 현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및 통상 정책을 함께 추진 중임
	경쟁동향	- 한국의 삼성, LG,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듦 - LG와 삼성의 경우, 투자를 통해 생산 플랜트를 건설한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지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어 조립라인을 운영 중 - 최근 쌍용차가 이집트 시장에 진출
	진출방안	- 투자, 라이선싱, 파트너, 합작의 형식으로 이집트에 진출할 것을 권장함 - 주한 이집트 대사 Hazem Fahmy에 따르면, 현재 이집트는 다수의 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히고 있으며, 이집트에 생산시설을 갖출 경우 18억 인구를 대상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고 함
품목명 4		
친환경 에너지	선정사유	이집트는 기업환경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일된 투자법 72조를 제정함. 이 법이 시행된 후에 투자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특혜를 줌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특혜를 받게됨 - 투자비용의 30% 감면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 전력전달 장관 및 재무장관의 공동 제안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효한 법령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시장동향	- 이집트는 중동 지역의 풍력 발전 선두주자임 - 중동 지역의 풍력 발전량 중 약 57%를 생산함. 이는 모로코, 이란, 튀니지를 앞서는 수치임 - 수에즈 운하 지역은 세계에서 풍속이 가장 빠른 곳 중 하나로, 평균 풍속이 10m/s에 달함 - 이집트 투자청(GAFI)에 따르면, 광활한 사막 지역과 홍해 해안지역은 풍력발전을 위한 최적지라고 함
	경쟁동향	- 현재 이집트 친환경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가 선점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El Dbaa 원전 개발계획에 의해, 이집트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9%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함 - 해당 원전 개발사업은 러시아와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러시아 원자력 회사 로사토크에 따르면, 건설 기간 12년, 운영 60년, 연장 기간 20년까지 총 100년에 걸쳐 양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함
	진출방안	- 이집트는 현재 신재생수도 건설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개발을 추진 중임 - 이와 관련 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한국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전망 - 2016년 3월, 대우 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은 전기 송신기를 공급하는 2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이집트 정부와 체결함. Pulse사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4~5개의 500kV 규모 가스절연 개폐장치 변전소 건설 및 전력 송수신 장비 등을 Zagazig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함 - 본 프로젝트에는 대우건설, 현대중공업이 참여할 예정 - 일반적으로 현지 당국과의 파트너십 체결에 성공하고 전력 프로젝트의 공급자가 되려는 외국 기업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함
품목명 5		
IT 분야	선정사유	- 현재 이집트 정부는 IT 분야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시장동향	- 이집트에는 미국 인텔, 프랑스 오렌지, 영국 보타폰과 같은 회사들이 진출해 있으며, 다방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경쟁동향	- 이집트 통신규제청(NTRA)은 브로드 밴드, 유무선 통신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IT 분야의 인적 자원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집트의 정보통신 분야는 글로벌 아웃소싱에 있어 선두적인 역할을 하며, MENA 지역의 선두주자임
	진출방안	- 정부는 2021년까지 가정의 고정광대역 범위를 90%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 - 정부는 4G 사용 비율을 인구의 9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 - 이집트 투자청(GAFI)에 따르면 KA-밴드는 광대역의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들은 본 프로젝트에 케이블 섬유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임 - 이집트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분야 사업들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품목명 6		
의료분야	선정사유	- 이집트투자청에 따르면, 연평균 2.2%의 속도로 증가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진화하는 도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시장동향	- 최근 이집트 보건의료 시스템은 이집트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을 경험하고 있음 - 보험은 전체 인구의 58%만 보장하며, 이집트에는 건강보험의 제공자가 거의 없음 - 보험 사업의 대부분은 공기업이 하며 사기업은 거의 하지 않음
	경쟁동향	- 보험은 전체 인구의 58%만 보장하며, 이집트에는 건강보험 제공자가 거의 없음 - 보험 적용의 대부분은 공기업이 하며, 사기업은 거의 하지 않음 - 나머지 42%는 결국 신규 진입자의 의료기기 업체나 의료 사업자 간의 경쟁임
	진출방안	- 핵심투자지역 : 민간병원, 민간보험회사 - 헬완과 시와 지역의 자연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주요 도시의 최첨단 병원과 주간 클리닉에 이르기까지 1차 및 2차 진료소에 상당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마케팅) 한국 로드 솜 화장품 브랜드 프랜차이즈 진출 상담회(상반기)
-  (마케팅) K-Creative Content in Egypt(하반기)
-  (CSR) 2020년 이집트 철도학교(하반기)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2020. 1월 혹은 2월	
아랍연맹(AL) 정상회의	2020. 3월	
2020년 의회 선거	2020. 3월 혹은 5월	
G-20 정상회의	2020. 11.21 ~ 22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0/2021 국회 예산 심의	2020.6월/7월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2020.6월	2단계인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부협약내용 발표
부가가치세법 개정	TBD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utomech Formula 2019	2020.12월	
Mediconex&Pharmaconex Conference&Exhibition	2020.4.5 ~ 7	
SAHARA 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for Africa and the Middle East	2020.9월	

I. 한-이집트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이집트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이집트의 잠재력

- 중동·아프리카의 핵심국가이자 유럽·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관문
 - * 과거 중동전쟁을 주도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중동·아프리카 중심국 역할, 수에즈 운하 보유
-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보유
 - 2019년 7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공식 발효
 -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다양한 국가 및 경제권과 FTA 체결
- 북아프리카의 제조 허브로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 발달
 -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 아프리카 시장 진출 생산거점으로 활용 가능
- 성장 잠재력 높은 유망 내수시장
 - 약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으로 인구 기준 중동 1위
 - Post-BRICs(CIVETS) 또는 NEXT 11 국가로 거론되는 미래 유망 시장

 주요국의 대(對)이집트 경제협력 현황

-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집트와의 협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실정

주요국의 대(對) 이집트 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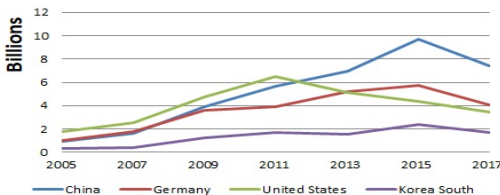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중국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완성과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이집트 • 수에즈운하 경제구역에 중국 전용공간 조성 •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 및 공공기관 참여 중
일본	• 제7차 도쿄국제아프리카개발회의(2019년 8월 요코하마)에서 인프라부문(전력, 메트로), 및 박물관 건설 등 문화부문의 협력강화 논의(JICA, JETRO) • 2015년 아베 총리 방문 시 이집트공항 및 파워그리드 프로젝트에 430억 엔 차관 제공
러시아	• 푸틴 대통령, 2019년 8월 이집트와의 전략적파트너십 협정 비준 (국방, 원자력, 교통 등 인프라, 관광, 교육, 과학, 문화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 러시아 전용 산업구역 조성 발표(70억 달러 규모)

한-이집트 수교 25년(2020년), 그동안 경제협력은 미흡한 수준

-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결의
- 1961년 영사관계 수립, 1995년 4월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970년대 중반까지 이집트는 대(對)북한 일변도 정책 견지
 - * 이집트의 비동맹주의와 중동전쟁(1967년, 1973년) 시 북한의 대(對)이집트 군사지원 영향
- 1970년대 중반 이후 이집트의 문호 개방 및 친(親) 서방 정책 추구로 남북한에 대해 중립 유지
 -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한국과의 경제 통상 관계 점차 신장
- 정상회담 3회(1995년 무라바크 대통령 방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순방, 2016년 엘시시 대통령 방한)
- 경제협력은 고위급 교류 시에만 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단절
- 이집트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대비 우리의 협력 시야와 방법의 차이
 - * 한국 : 수출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이집트 :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입 억제

한국-이집트 및 주요국 교역 / 투자 동향

1. 이집트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



- 2017년 이집트의 주요국 수입액은 중국으로부터 약 74억 불, 독일 41억 불, 미국 35억 불, 한국 17억 불 규모
- 2016~2017년도 증감률로 비교 시, 중국 약 -20%, 독일 -32%, 미국 -9%, 한국 -35%로 주요국 대비 높은 감소율 추세

2. 대(對) 이집트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상반기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원자로	플라스틱 제품	광물연료
중국	전자기기 및 부품	원자로	인공 필라멘트	플라스틱 제품	철강 제품
일본	자동차 및 부품	원자로	여류	전자기기 및 부품	고무 제품

- (수출경합도) 대(對)이집트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3개 품목, 한국과 일본은 3개 품목이 겹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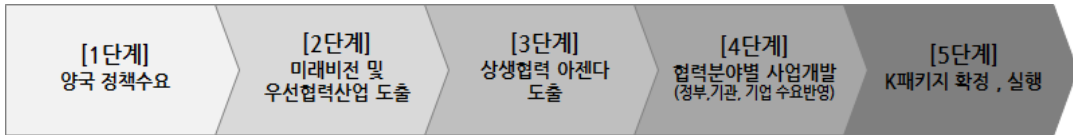
3. 대(對) 이집트 투자진출 현황(2018년 기준)

순위	국가별	비중
1	영국	34.6
2	벨기에	17.4
3	미국	17.1
4	아랍에미리트	8.2
5	네덜란드	2.7
6	기타	2.5
7	사우디아라비아	2.3
8	프랑스	1.8
---	---	---
31	한국	0.1

- 한국의 대(對)이집트 직접투자(약 3억2천 달러)도 제조업 분야에 집중
- 영국이 34.6%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약 0.1% 차지(31위)**
- 이집트 진출기업 수 (2019) : 한국 29개사 vs 일본 106개사 vs 중국 1,560개사
- 전체 투자 비중은 제조업(49.8%)이 가장 높으며, 기타(37.9%), 건설업(7.9%), 도소매업(4.4%) 순

나. 한-이집트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보다 체계적이고 Win-Win 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 개발 필요



* 이집트의 니즈와(수요 측면) 한국의 강점을 연결하여 상호 비전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이집트는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국민행복, 인적자원개발을 바탕으로 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 『2030년 세계 30위권 국가 도약 목표』

이집트의 협력 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 경제개발,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개발 및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PPP 프로젝트 ◆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 - ICT(전자정부, 5G, 스마트시티 등) ◆ 장기발전을 위한 이집트 혁신역량 강화 - 기술, 인력개발 및 산업발전 ◆ 제조역량 공유(투자진출-수출연계)
전기전자 및 부품	보건의료	
석유화학	폐기물처리 등 환경	
ICT	인프라건설	

이집트의 권역별 협력 수요

권역	내용
EU/미국	• 대(對)이집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에너지 분야 개발 가속화 • 이집트 외국인 투자유치의 78% 점유(2017/2018년) • 이집트 유전개발 등 에너지 분야에 외자 유치의 67% 집중
중동	• ICT 등 이집트의 신성장 산업 부문에 투자 급증(2017/2018년) •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 이집트 전문인력(의료 등) 진출 지속
아프리카	• AfCFTA 협정 발효(2019년 5월)로 교역대상 품목 90% 무관세(2020년 7월 1일) • 서북부 및 중부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제조업 거점 활용 •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역내 리더 역할
아시아 /러시아	• 아시아 주요 3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과의 교류협력 강화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실현을 위한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 • 러시아의 이집트 경제구역개발 투자 및 원전 건설 참여

우리나라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시장 진출 핵심 교두보인 이집트와 경험 개발 노력 (2016년 3월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 국가)

* 정부, 기관, 기업 단계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G2G, B2G, B2B 협력전략 부재

(최근 양국 G2G 레벨 회담에서의 주요 협력 논의 분야) 산업통상, 자동차, 방산, 철도, 항만, 환경, 공공 인프라, 에너지 신산업, 문화 등

이집트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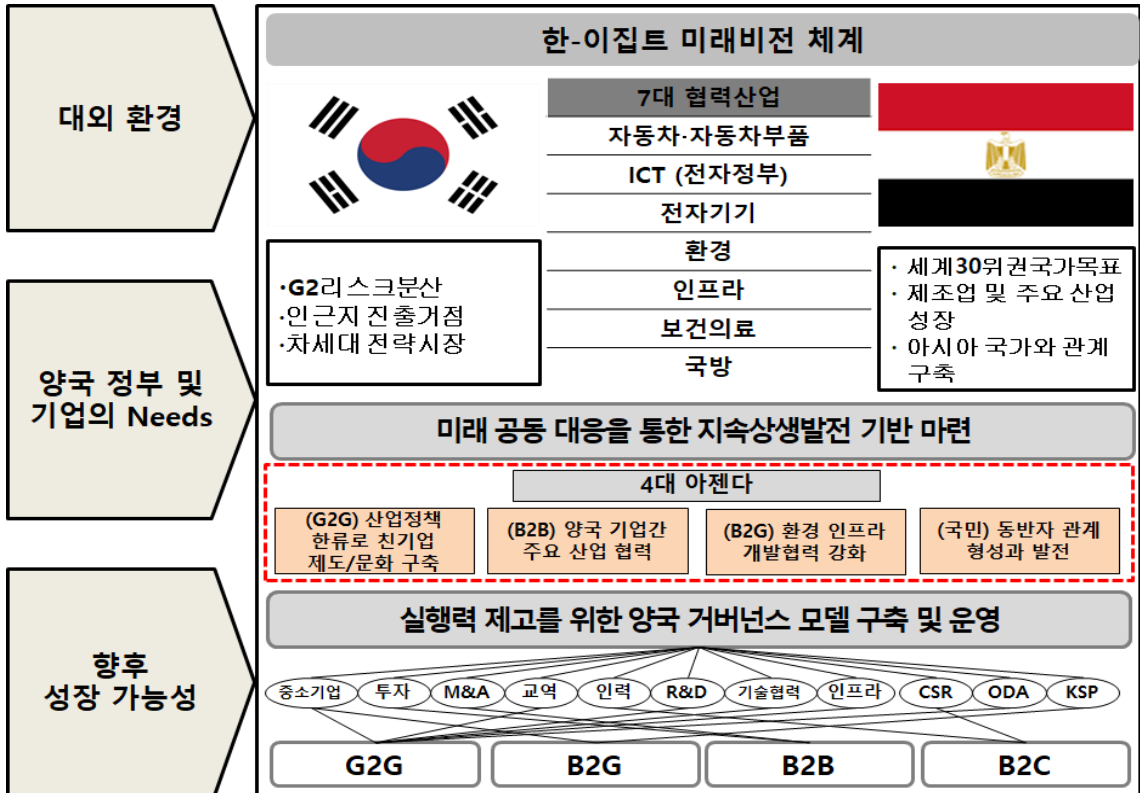
협력 우선 산업 ¹⁾		구체적인 역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가전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인프라	ICT	◆ 경제발전 경험 및 공유, 전파 역량 보유 - KSP, CSR, 한류 등 ◆ 해외 투자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전 세계 상위권
에너지 재생	방위 산업	◆ 전통적 ICT 강국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 11위(Business Insider, 2017년 6월)
인력 개발	환경	◆ 높은 전문인력/기술 보유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1) 양국 정부 정책, 기업수요(설문), 한국무역역량과 이집트 시장성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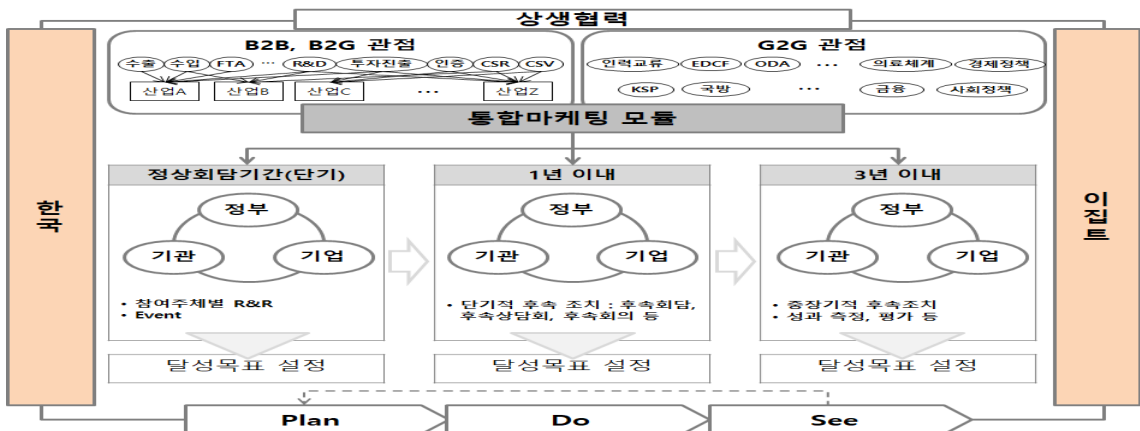
한-이집트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경제협력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성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추구하는 이집트와 한국 간 경제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지향점 설정

*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외교, 안보, 정치 및 문화 등 분야는 추가적으로 반영 필요



한-이집트 비전 달성을 위해 양국 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한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 필요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산업·통상 협력 확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 한류와 경제 한류를 넘어 산업 및 정책 한류로

① 양국 FTA 체결 추진 등 산업통상 협력으로 교역조건 개선

- (정책 수요) 2016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통상 분야, 무역 및 투자진흥 분야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의제 지속 논의
 - － 시장잠재력이 큰 이집트와의 FTA 추진으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 * 이집트 대통령 방한(2016년 3월) 때 한국의 EDCF 자금 지원 MOU 체결, 유엔 총회(2018년 뉴욕)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방산 등 협력 확대 논의
- (기업 수요) 양국 기업 대상 우선 협력 분야 설문조사 결과, 교역확대가 최우선적으로 높은 순위, 우리 수출업계의 FTA 추진 필요성 제기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38개사)	교역확대 59%	자유무역협정 체결 32%	4차 산업혁명 8%
이집트(30개사)	교역확대 30%	4차산업혁명 16%	스타트업 협력 14%

자료 : KOTRA 설문조사 결과(2019년 10월)

- －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양국 기업 모두 직·간접 수입규제를 상위권으로 선택(한국 1순위 40%, 이집트 2순위 24%)
 - * 산업통상부장관 민관합동사절단 이집트 방문(2016년 5월) 시 우리 수출업계에서 한-이집트 FTA 추진 필요성 제기
- (현지 여건) 이집트, 16개 FTA 협정 발효 중으로 그 중 EU 및 터키와의 FTA는 우리기업의 이집트 시장 진출 시 경쟁력 저하 요인
 - － EU산 공산품 대부분이 2019년 1월부터 무관세로 이집트에 수입
 - * 한국의 대(對)이집트 수출 주력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부품 수출 14% 감소(2019년 8월 기준)
- (협력 방안) 한-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정부 간 공식채널 개설 필요
 - － 한·이집트 민간경제위원회 설립(2019년 10월, 대한상의, 이집트기업인협회)
 - * 자동차 부품, 섬유 등 현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 파트너십 구축 확대로 현지 업계 반발 최소화

② 상호 인증 협력기반 구축

- (정책 수요) 이집트 수출입청(GOEIC), 보건부(MOH), 기술품질원(EOS) 등 국제입찰 관련 인증 기관과 상호협력 강화

- 이집트 정부, 의료기기 참조국(Reference Country)²⁾ 제도 시행 중
 - G2G 차원의 인증 분야 기술협력, 상호인증, 인허가 취득지원 기반조성 필요
- (기업수요) 양국 기업 대상 우선 협력 분야 설문조사 결과,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중 까다로운 인증 제도가 두 번째로 높은 순위 차지

한-브라질 인증 분야 G2G레벨 협력사례

- ◆ 양국 산업부 간 한-메르코수르 TA 관련 전자·가스·자동차 등 품목의 기술규제·인증에 대한 협상 진행 중
 - * 브라질 인증기관(INMETRO)의 경우, SUB 그룹으로 참여 중
- ◆ KOTRA - 협력 MOU 체결(2015, 2017년)
 - (2015년 10월) KOTRA-INMETRO 협력 MOU
 - (2016년 9월) INMETRO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 장비 기증(통상연계형경험사업)
 - (2017년 5월) KOTRA-INMETRO 협력 확대 MOU 체결
 - * 기존 전자분야 위주에서 의료 분야로 기술규제 완화 및 인증 협력 확대
- ◆ 양 기관 대표, 직접 만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 추진(2018년)
 - 대(對)브라질 인증 애로사항 및 진출수요 조사
 - 내용 : 브라질 진출(수출 포함) 시 인증 애로 주요 분야 및 애로사항
 - 브라질 인증(진출) 안내자료 한국어판 제작
 - 내용 : 포어(또는 영어) 브라질 인증 안내자료의 한국어판 제작
 - 2019년 상반기 한국에서 KOTRA-인메트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공동 대(對)브라질 인증진출세미나 개최
 - 양국 인증 협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추진(2~3주간)
 - 인메트로에 대한 인증 유효 장비 이전 사업(CSR 또는 KSP 일환) 추진
- ◆ KTR의 경우, 인증취득 기업 수요를 직접 받아 이를 지원(B2G)

- (협력 방안) 우리나라 산업부 및 이집트 인증 당국과 협력 MOU 체결
 - 이후 KOTRA, KTR 및 이집트 수출입청, 보건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기반 마련 → 양국 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지원(한-브라질 사례 벤치마킹)
 - * 전문가 인적교류, 인증애로사항 등 정보공유, 인증안내자료 제작, 인증취득 지원 등

3 국방협력 강화를 통한 방위 산업 수출 확대

- (정책 수요) 양국 정상회담 시 고위급 교류와 정례 정책협의 강조
 - 뉴욕 유엔총회(2018년 9월) 계기 정상회담 시 양국 간 논의 중인 한국산 자주포 및 해군 호위함 이집트 도입에 관심과 지원 표명
- (현지 수요) 대(對)테러 작전 수행 및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 추진
 - 이집트 국방 분야 지출 연평균 6%대 성장, 2022년 국방 예산 56억 달러 예상

2) 이집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및 제품 등록 시 Reference Country라 불리는 22개 선진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제품 또는 'Reference Country' 내의 FSC(Free Sales Certificate)를 획득한 제품은 등록이 용이한 반면, 그렇지 못한 제품은 매우 까다로운 진출 장벽으로 작용

- 이집트의 주요 방산품과 서비스는 수입(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편향된 구조
 - * 미국 이외 고급 방위기술은 주로 프랑스와 러시아에 의존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분쟁 증가, 이집트 정권 안보를 위한 국방 예산 증가 전망
- o (시장 동향) 이집트, 아랍국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무기 및 방산품 제조국가
 - 방산품 교역을 위해서는 이집트 군 당국 또는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유지 필수
 -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 화학플랜트, 항만 등의 산업 분야에 방산품 수요 존재
 - 지속적인 테러 위협 등 치안불안 요소들로 인한 방산품 수입 수요 증가 추세
- o (기업 수요) 한국 주요 방산 기업, 이집트 군 당국과 방산품 수출 협의 추진 중

방산기업	추진내용
H사	K-9 자주포 수출 추진, 이집트 해군과 기술 협의 추진
K사	전투기(FA-50) 수출 및 ILS(종합군수지원) 공급 협의 추진
S사	정찰 위성 수출 협의 추진 중

- o (협력 방안) 이집트 정부, 고도화된 무기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 기업의 기술 전수 및 합작투자 희망
 - 이집트 내 합작생산 투자로 이집트를 거점으로 중동·아프리카 수출 추진
 - * 이집트 정부, 한국 방산기술 높이 평가, 기술이전과 합작투자를 통해 내수 및 수출 희망
 - * 이집트는 해외에서 무기 도입 시 대부분 장기 저리 금융 지원방안을 요구
 - 군 고위급 상호방문 정례화, 연합훈련, 군사교류 강화 등을 통해 협력기반 마련
 - 방위산업사절단 방문 등 정례적인 현지설명회 개최 및 군 관계자 방한 초청 추진
 - 양국 지휘참모대학 및 국방대학교 상호 위탁교육 추진, 이집트 사관생도의 한국 사관학교 수탁 교육 등 이집트 군내 고위급 친한파 양성 지속 추진

4 KSP/ODA를 활용한 산업·정책 한류 확산

- o (정책 수요) 이집트는 한국으로부터 주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컨설팅, 전자·금융·ICT 등의 인프라구축 관련 KSP 수요가 존재

기술혁신과 자체 제조업 역량 강화는 이집트의 산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특히 이집트 정부가 요구하는 KSP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분야 현지 프로젝트 참여 우위 확보

그간의 대(對)이집트 KSP

연도	사업명	세부내용
2014/ 2015	이집트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컨설팅	• 이집트 연금관리 강화 방안(한국의 관리 경험에서 얻는 시사점) • 이집트 ICT·지식기반 경제시스템 구축(국제협력부 : KDI) • 이집트 수출촉진, 중소기업 정책, 경제계획 역량 강화

2016/ 2017	이집트의 지적재산권 전략 수립 지원	• 양국의 IP 법률 비교 연구를 통한 이집트 IP 관련법의 문제점 도출 및 IP 부문의 IT 인프라 개발전략, 효율적인 IP 행정 도입(이집트 특허청 : KDI, KIIP)
2016/ 2017	이집트 공공재정 및 조세시스템 개선	• 이 프로젝트 이후 이집트 정부가 전자결제법을 승인하고 모든 정부 서비스에 대한 현금 지불을 제한(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9	이집트 결제 시스템 개선	• 이집트 소매결제시스템 개선 및 관련규정 도입,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연구(이집트중앙은행 : KDI)

자료 : www.ksp.go.kr

○ (향후 제안)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요 아젠다별 KSP/ODA 실행

- 이집트 정부가 한국과의 KSP에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대한 한국의 실행 가능성 적극 검토 및 추진
 - * 전자 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개발, 산업폐기물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 인증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이집트 제품의 경쟁력 확보, 품질 검사 분야 경험 공유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KSP 수요 존재

- ▶ 산업단지 및 과학기술단지, 경제구역 개발 참여를 통한 협력 확대 → ① 이집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로컬 기업 기술이전과, ②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글로벌 파트너링을 함께 담는 win-win 형태 협력 가능
- ▶ 이집트 정부 역점사업인 인프라건설(신행정수도, 교통), 환경 분야 협력(PPP 연계)
 - ① 인프라 건설 및 환경개선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② 특히 고품폐기물 처리 부문의 중소형 프로젝트와 KSP를 연계해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 인증기관 및 품질검사 역량 강화 → ① 소비재 대(對)이집트 수출 시 수출자 공장등록 및 선적 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해 KSP를 통한 양국 간 인증기관 상호교류 등 인증 저변 확대 ② 중장기적으로 Reference Country 등록 등 의료 기기 인증 관련 협력방안 등 추진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① 제조업(자동차, 자동차 부품) 협력

○ (시장 수요) 양국 기업인 모두 제조(자동차 등)를 협력 1순위로 선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38개사)	제조(스마트자동차 등) 137%	헬스케어 70%	ICT 89%
이집트(30개사)	제조(스마트자동차 등) 32%	스마트시티 11%	ICT/신재생에너지 9%

주 : 복수선택에 따른 누적가중치, 2019년 10월, KOTRA 설문조사 결과

- 이집트 자동차 생산 2018년 9.1% 성장 및 2022년까지 연평균 2.5% 성장 전망
- 이집트 자동차생산촉진제 각료 회의 통과(2019년 8월)로 자동차 제조업 활성화 기대
- (정책 수요) EU와의 FTA 효과로 이집트산 자동차의 경쟁력 저하
 - EU, 모로코, 터키산 자동차에 대응해 이집트 조립업체들이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_자동차산업진흥책 추진
 - * 이집트 국내산 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관세 혜택 및 해당 제조업체가 자본재, 기계 수입 시 관세 감감

- 이집트 정부,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나 기술 및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
- 외국기업 직접투자 유치 또는 합작투자로 **전기차 제조단지 건설 추진**
 - * 이집트 군수부, 중국 Geely자동차와 전기차 생산을 위한 MOU 체결(2019년 9월)
 - * 전기차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딜러와 소비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 (현지 역량) 2018년 기준 설비 투자액 46억 달러, 생산량 2만 대

(단위 : 백만 달러, 대)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
설비투자액	3,143.6	3,534.4	4,601.2
생산량	59,319	46,373	20,495
국내 소비량	141,983	11,701	45,837
수출	181.3	213.1	76.2
수입	1,506.8	857.6	764.2

자료 : 이집트중앙은행, Automotive Market Information Council(AMIC)

- 신규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현지 설립 등으로 최근 생산설비 투자액 증가 추세
 - * 자동차 조립설비를 주로 수입하며, CKD 방식을 선호, 주로 유럽산과 미국산 선호
- 이집트 전기차 시장에 중국 진출 본격화
 - * Shanghai Stock Exchange와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 제작공장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 Foton과 4년간 전기버스 2천 대 이집트 국내에서 생산 합의

○ (협력 방안) 투자진출 기반 양국 주력 기업 중심 협업 기반 조성

협력 프레임	현대, 기아차 등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 부품, 보수 등 중소기업 진출 분야로 확대
1단계	(G2G) 공장 증설, 생산 확대 등에 관한 규제 완화 등 합의, FTA 체결 추진
2단계	(B2B) 현대, 기아차 시장점유 확대
3단계	중소 부품업체 진출, 유지·보수 지속
추가 방안	친환경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분야 전 과정 협력 프로세스 구축

가장 중요한 것은 G2G 레벨의 FTA 등 통상협력 제도적 기반을 최단기일 내 마련하는 것

◆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술 제휴

- (참여주체) 한국 : 현대, 기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 OEM 공급 가능 대기업
이집트 : 자동차 조립업체 및 부품 업체
- (협력내용)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의 내용으로 기술 제휴협약 체결, 양국 기업 간의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 및 성능 향상(에너지 배터리 등), 한국 전기자동차 부품 회사의 부품 현지 조달 및 공급망 확충

◆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투자진출)

- (참여주체) 한국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 전력, 전기 자동차 인프라 관련 기업
이집트 : 교통부, 군수부, 자동차협회 등
- (협력내용) 법·제도 마련, 전기자동차 인프라 개발 구역 지정, 국내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들의 투자진출

2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 (정책 수요) 2022년까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중
 - － 이집트 정부, 조세 행정 및 세관 시스템 개선 전산화 프로젝트 추진
 - * 2022년까지 E-Tax 프로젝트에 8,000만 달러 투자 예정
- (현지 수요) 이집트 정부의 행정 전산화 및 인터넷 환경 개선 수요 증대
 - － 수요에 비해 정부의 재정 및 기술 부족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의존
 - － 향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에 투자하는 비용 증가 기대
 - * 삼성 SDS, LG CNS 등 한국 ICT 관련 기업이 관심 표명
 - * 이집트 관세행정 분야에 한국의 Single Window System 도입을 위한 협의 추진
 - － KT(Korea Telecom), 이집트 수에즈운하청과 이집트 전역의 인터넷 속도 향상(1GBPs)을 위한 신기술 도입 양해각서 체결(2018년 10월)
 - * 이집트 정부, 화웨이(Huawei), 에릭슨(Ericson) 등과도 인터넷 인프라 협력 추진 중
- (한국 역량) 5G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등 통신장비 제조 및 기술에 경쟁우위가 있고 IT 강국으로서 관련 서비스 및 활용 면에서 역량 보유
- (협력 방안) 기술이전, KSP 및 CSR를 활용 G2G-B2G 주체 참여
 - －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³⁾의 스마트시티 등 ICT 부문 수요 활용

3) 2030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대부분 BOT 또는 PPP 방식 추진

분야	참여주체	선정이유
	추진방향	
전자정부 KSP (G2G)	• 한국 :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KDI 등 • 이집트 : 재무부	• 이집트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수립
	• 전자정부를 위한 ICT 인프라 구축 상태, 전자정부 진행 경과(정책 및 시스템), 담당 기관의 거버넌스, 향후 도전과제 등 이집트 전자정부 관련 종합적인 현황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실시 • 전자정부 혁신, R&D,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한국 : 삼성전자, LG전자 등 진출기업 • 이집트 : 관련기업 및 정부 부처	• 정부의 ICT 발전의지 및 통신기기 수요 증가 충족과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 • 이집트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 형성
기업 CSR (B2G)	• 단말기 보급 및 스마트 폰 앱을 통한 현지 소외 계층 및 취약지역 아동 복지 지원 • 진출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 민간 합동추진 가능 방안 검토	

* 현지 기업의 기술력 열위 및 관련 설비 수입 의존 등 현지 시장여건 활용

③ 전자제품 및 부품 분야 협력

- (정책 수요) 이집트 정부, Egypt Makes Electronics(EME) 정책 추진
 - 전자 산업은 이집트 제조업에 기여도가 큰 산업(2018년 국내생산 493억 달러)
 - * 이집트 대통령, 전자제품 및 기기 관련 제조업 육성 적극 추진 천명
 - 이집트 정부, 전자 산업 등 제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외자 유치 적극 추진 중
 - * 다양한 수출 인센티브 제공(특히 낙후된 이집트 남부지역 투자 유도)
- (시장 수요) 이집트 전자 산업, 원재료 및 부품 등 해외수입에 의존
 - 제조업에 유리한 조건, 한국산 부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신뢰
 - * 전자제품의 70% 조립생산, 30% 현지 공장 제조, 부품의 40% 해외 수입
 - * 삼성전자, LG전자 이집트공장의 수출이 이집트 가전제품 수출의 90% 차지
- (현지 역량) 이집트의 제조업 생산량에 기여가 큰 선도 산업 중 하나
 - 약 260여 개의 현지제조업체 중 132개는 가전제품, 128개는 상업용 전자제품 생산

(단위 : 억 달러)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
설비투자액	46.87	30.86	48.13
생산	328.97	341.07	493.30
국내 소비	52.29	72.58	82.30
수출	6.12	4.96	7.40
수입	11.58	7.73	5.82

자료 : 이집트중앙은행, Fitch Solutions

- (협력 방안) 신남방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공급망 연계 추진
 - 한국기업 중 일부 베트남,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자사 부품 수입 중
 - * 이집트를 중동·아프리카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AICFTA 발효 중)
 -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집중 지원을 통한 현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 *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Beni Suef 지역에 한-이집트 기술대학 개교(2019년 9월)

- 이집트 정부, Beni Suef 등 남부지역 개발을 통한 자국 제조업 육성에 중점
 - * 양국 정부, 우리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에 용이
- 이집트 수요 맞춤형의 전략적인 KSP 발굴 및 제안
 - * 이집트 정부통신기술부(MCIT)는 전자 산업 및 제조 분야 투자촉진 관련 KSP사업에 큰 관심 표명

다. [B2G] 환경·플랜트·인프라 개발협력 강화

① 협력 수요

- (정책 수요) 이집트 대통령, 환경개선 분야에 투자 확대 및 외자 유치 강조
 - 환경 분야는 이집트 정부가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분야로 연간 고형폐기물 처리비용 약 3,500만 달러
 - 폐지 재활용 분야 향후 3년간 연 20% 성장 예상_월드뱅크 전망
 - 수자원 재활용 설비 구축 등에 2018년부터 5년간 1억 달러 투자 예정
- (현지 수요) 도로와 주택 공급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이 이집트 프로젝트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
 -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우 공공시설, 주택,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으로 외국(한국) 기업 참여 수요 충분
 - 이집트 정부의 '이집트 SDS 2030' 계획에 따라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재활용, 담수화 플랜트 등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중

환경·플랜트 분야 경쟁 동향

- ▶ 폐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Waste to Energy)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 중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이집트 정부에 폐기물에너지(WtE) 사업제안서 제출
 - 폐기물에너지 분야 시장규모 2027년까지 13억 달러 예상
- ▶ 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 UAE 등 주요국 이집트 해수담수화 플랜트에 관심 및 대규모 투자 제안
 - 이집트 시나이반도, 홍해 등 전역에 63개의 담수화 플랜트 가동 중
 - 이집트 정부, 2022년까지 21개 담수화 플랜트 추가 건설 예정

- (시장 현황) 환경, 인프라 중심의 건설이 이집트 프로젝트 시장 성장 견인 예상
 - 신행정수도 건설, 카이로 메트로 등 대형 프로젝트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또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의 프로젝트 위주로 성장 예상

참여 유망한 신행정수도 건설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내용	상태	규모(US\$)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4배 크기의 테마파크 건설	타당성조사	4억
메디컬파크	63개의 병원과 1,000개의 클리닉 건설	타당성조사	2억 5,000만
지식도시	대학과 학교 위주의 지식기반 도시 건설	디자인	1억

자료 :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청

2 협력 방안

- 환경·인프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출입 은행, 환경산업기술원, 플랜트 산업협회 등 공공기관과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이 중요(B2G)

한국 기업 성공 사례

한국 중소기업 J사, 알렉산드리아 몬타자 폐기물처리 플랜트 내 RDF 생산라인 투자 및 건설 진출, 일 200톤의 고열량 RDF 생산 중, 알렉산드리아 주 정부와 BOT 계약, 기간 15년(2019)

* 이집트 군수부와 MOU 체결 후 이집트 내 65개의 폐기물처리 플랜트 노후화 시설 교체 및 신설, RDF 생산라인 신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중(환경산업기술원 F/S자금 지원)

- 교통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중 하나인 카이로메트로 5호선 프로젝트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해 이집트 정부가 한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접촉 전망
 - * 한국 수출입은행의 EDCF 지원 가능 여부 등 사업 참여에 대한 검토 필요
 - * 카이로메트로 3호선 전동차 공급에 한국의 현대로템이 기 공급계약 체결(2017년)
- 이집트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⁴⁾ 참여를 위해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철도 운영 역량배양 지원을 위한 CSR 사업(철도학교) 지속 추진
 - * 2018년 한국철도공단이 40억 원 규모의 철도신호현대화 사업 컨설팅 계약 체결
- 우리나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및 활용
 -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시장에서 프로젝트 수주성과 확산 위한 정책 내용(2018년 11월)
- 정부차원의 대중소 동반진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진출 활성화, 인력·금융·정보제공 등 역량 강화 및 이를 활용한 기업 지원

한국 기업 성공 사례

GS건설이 삼보E&C(지하연속벽 공법 전문업체)와 동아지질(연약지반 공법 전문업체)와 협력, 싱가포르의 빌딩형 지하철차량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1.7조원 규모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전 세계 유수 건설사들 간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차량기지가 들어설 지반이 연약한 점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할지가 입찰 최대 변수인 상황에서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수주 성공 → 과거 저가 수주전략 탈피, 기술력에 기반 한 수주 사례(2006년 3월)

4) 이집트 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길이 1,089km, 총사업비 10억 6,000만 달러 규모

○ KOTRA-KIND 협력 플랫폼을 활용, PPP 수주 확대

*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KOTRA 간 MOU 체결(2018년 8월)

** 세계 PPP 시장 한국점유율 1.5% 미만, 2017년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 중 PPP 비중 6% 미만

PPP 수주 확대를 위한 KOTRA-KIND 협력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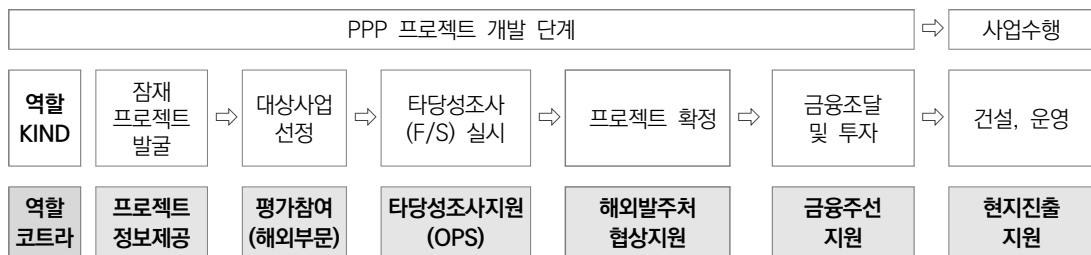
◆ 양 기관 협력 MOU 체결(2018년 8월) 배경

- (시장) PPP 시장 확대에도 우리기업 진출 실적 저조
 - *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WB) : 2005년 403억 불 → 2015년 1,199억(약 3배)
 - * 세계 PPP시장 한국점유율 1.5% 미만, 2017년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 중 PPP 비중 6% 미만
- (현황) MDB·재정사업 위주, 단순 도급형 프로젝트 발굴 중심 수주 지원 한계
 - ⇒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PPP 프로젝트 지원 신(新)기능 도입 필요

◆ 업무협력 범위

- 국별 PPP 시장 진출 관련 정보 수집 및 발간
- 유망 프로젝트 공동개발
- 발굴 프로젝트 정보 공유
- KIND의 잠재적 투자대상 검토 시 KOTRA의 현지조사 및 수행기업 공동지원
- 해외정부 및 발주처 교섭 등 프로젝트 수주 공동지원
- KIND 직원의 KOTRA 해외무역관 파견 및 공동사업* 추진
 - * (예) 국가별 PPP 정책 공동연구, PPP 전문 국내 설명회·상담회 추진 등

<기관 간 업무협력 R&R>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개요

- (설립목적) 우리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 지원(국토부 산하/2018년 6월 창립)
- (주요기능) 사업발굴·개발·금융지원 등 PPP 사업 전 단계를 전문적 지원
 - * 현재 국토부 운영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이관, 신규 조성중인 신남방·신북방 GIF 수행예정
 - * 사업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 114억 원 조성
- (자본금) 총 1,900억 원(현물출자 1,300억 원 + 현금출자 600억 원*)
 - * 7개 공기업(토공, 도공,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현물투자/건설공제조합·수은 현금투자
- (조직/인력) 사업개발, 투자관리 등 3개 본부 7개 팀/50명

라. [국민] 동반자 관계 형성과 발전

① 상생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

- 정부, 기업,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한국문화원 외 K-Beauty, K-Pop 등 한류 콘텐츠 (춤, 노래, 화장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한국문화원 K-콘텐츠 강좌 오프라인 교육지원(장소 섭외 및 강좌 홍보 등)
- 양국 교육기관(대학교, 사설 기관) 및 정부 간 MOU를 통한 학생 교류 및 한국어 강좌 확대 (온라인, 오프라인)

② CSR 활성화

이집트 진출 국내 주요 기업의 CSR 활동 현황

기업명	CSR 활동
LG전자	-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Academic quiz TV Show(AI Abakera)' 메인스폰서 후원 - 이집트 정부가 홍보하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 후원 및 홍보 - 상기 프로그램 시즌 우승팀 학생 20여 명 한국 초청해 문화 및 기술 체험기회 제공, 라마단 기간 30쌍의 신혼부부 선정해 LG가전제품 증정
삼성전자	- 베니수에프 지역 등 스마트 스쿨 약 30곳 지원 -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삼성 이노베이션 센터' 건립 예정 - 고아원 방문, NGO와 협력으로 라마단 기간 푸드박스 방문 전달
현대로템	- 기술자,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 대학생 대상 인턴 프로그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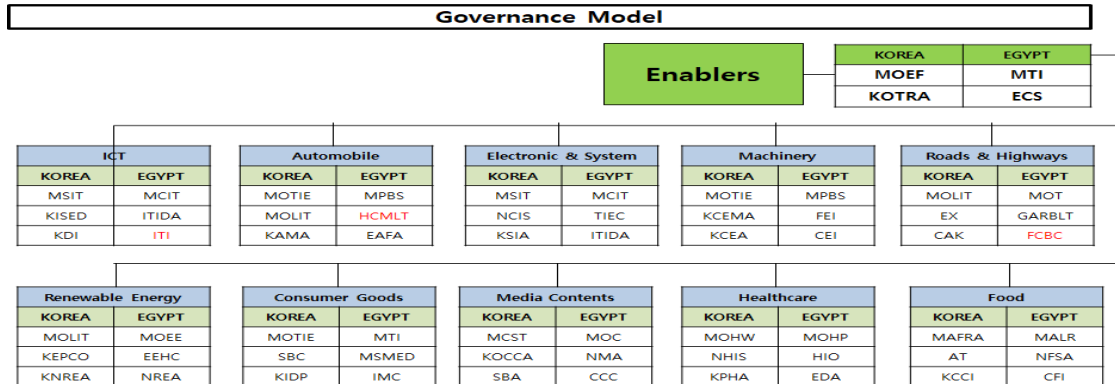
G2G/B2G 레벨에서 CSR 활성화를 위한 과제

- ▶ 대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CSR 활동 홍보 지원
- ▶ 이집트 청년 대상 현지 기진출 대기업 기술전수 및 직업 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원
 - * 고급인력 공급 인센티브 협의(G2G), 수료학생 현지기업 취업 지원(B2B)
- ▶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현지진출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한국문화 페스티벌 정례화
- ▶ 이집트 진출 대기업 CSR에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 대기업의 경우 활동 수행여부가 크게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의 활동은 미비
- ▶ 단순 나눔의 CSR에서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 전략적 경영활동으로 진화(예 : CSV) 될 수 있는 프로세스 지원

Ⅲ. 향후 對이집트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현재 양국 정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장관급) 채널 부재
- Sub 분과를 만들어, 분야별 트러블 슈팅, 신규과제 발굴, 실행력 제고



KOREA	EGYPT
CAK :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KAMA :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KDI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EPCO :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NREA : Korea Renewable Energy Association KOCCA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EMA :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KPHA :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MCS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HW : Ministry of Health&Welfare MOTIE : Ministry of Trade, Industry&Energy MSIT : Ministry of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NCIS : National Computing and Information Service SBA : Seoul Business Agency SBC : Small and Medium Bsuiness Corporation	MCIT :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IDA :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Development Agency MOEE : Ministry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 EEHC : 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 NREA : New&Renewable Energy Authority MTI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OHP : Ministry of Health and Population MOT : Ministry of Transportation of Egypt FEI : Federation of Egyptian Industries TIEC :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enter NFSA : National Food Safety Authority CEI : Chamber of Engineering Industries MPBS : Ministry of Public Business Sector EAFA : Egyptian Auto Feeders Association ITI : 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 FCBC : Federation for Construction&Building Contractors CCC : Cairo Culture Center

주) 빨간색으로 표기된 기관은 부분적으로 기능 일치

②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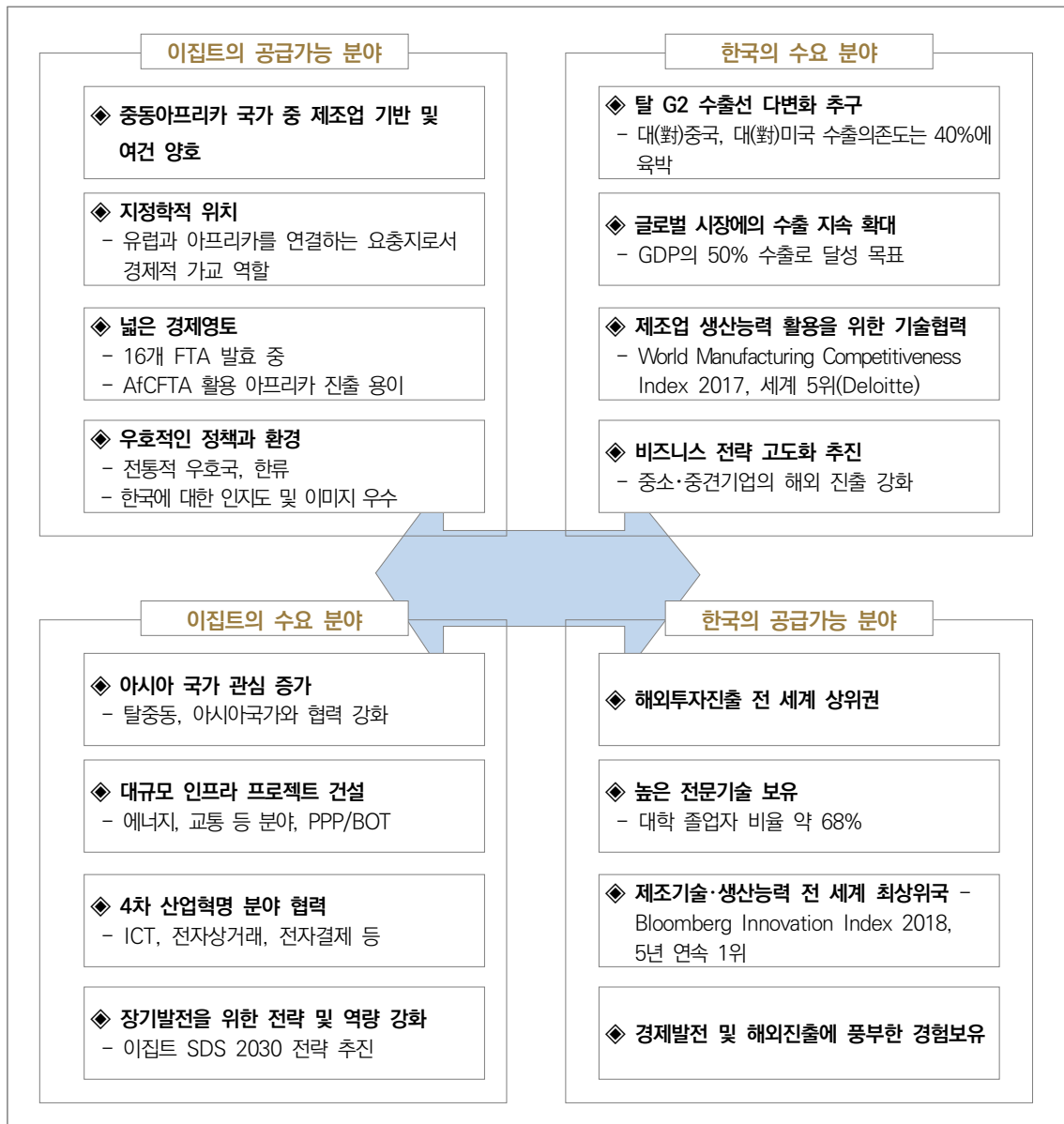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향후 한-이집트 정상회담 시 K패키지 내용을 활용, 과제선정 및 실행

* 양국 정부 부처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병행

한-이집트 상생협력 요약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지혜	과장	카이로무역관	+20-2-2754-5319	iamjh@kotra.or.kr

KOTRA자료 20-072

2020 국별 진출전략 이집트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18-7(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